

6.25전쟁 시 개성철도경찰대의 개성역 전투연구*

변혜석**

1. 머리말
2. 6.25전쟁 이전 개성철도경찰대의 임무
3. 개성철도경찰대의 개성역 전투 분석
4. 맺음말

1. 머리말

개성역 전투는 6.25전쟁 개전 당일, 북한군의 기습공격으로 개성 주둔 국군 제1보병사단 제12연대 예하 3개 중대 병력이 분산되어 철수할 당시, 국립경찰 개성철도경찰대의 대원 50명이 북한군을 저지하여, 경의선 개성역을 사수하기 위한 지연 및 방어전이였다.

* 연구를 위해 문서 공개를 허락해 주신 경찰청과 경찰대학, 국가기록원에 감사드리며, 논문의 틀을 갖추게 도움을 주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 조성훈 부장님과 익명의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전,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대학원 외래교수

개성철도경찰대는 전쟁 발발 당시, 내무부 치안국 직속, 철도경찰 본대의 산하 조직인 13개 지방철도경찰대 가운데 1개 지방 철도경찰 대로서, 38선 서북단 개성지구의 철도역과 철도시설(교량과 연선 및 터널 등)에 대한 경계임무를 전담한 경찰조직이었다.

이들은 해방 이후, 철도시설 보호와 철도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미군정기인 1946년 1월 25일 주둔군 최고사령관 하지(John R. Hodge) 중장에 의해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경찰이었고, 정전 이후 1953년 10월 15일 조직의 해체 시까지, 약 7년간 1개 지방 경찰청과 동일하게 독립 관청으로 운영된 특수경찰조직이었다.¹⁾

이처럼 개성철도경찰대는 비정규군인 특수경찰조직이었으나, 개성을 침공한 북한 정규군과 막강한 화력에 맞서 빈약한 무기에도 불구하고, 교전을 감행했으며, 최후의 순간까지 후퇴하지 않고, 북한군을 향해 전진 공격함으로써, 국립경찰의 명예와 호국의 의지, 그리고 희생정신을 고취시켰다. 더욱이 이들이 감행한 개성역 전투는 개전 이후, 국립경찰 최초의 전투이었으며, 개전 초기, 경찰 단독전투로는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치열한 전투이었다.

그러나 66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개성역 전투에 대한 선례연구가 전무하여, 실증적인 연구나 평가는 찾아볼 수 없으며, 전투의 결과로 전사한 대원들의 명단 또한 대장 감봉룡 경감²⁾을 제외하고는 밝혀지지 않고 있어,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개성역 전투 이후, 개성항락 경위에 대해서 일부 초기 전사(戰史)자료에는 검증되지 않은 증언으로 인해, 와전되어진 ‘북한군의 경의선 철도편승설’이 기술되어 있다. 더구나 이 같은 일설이 현재까지도 인용되고 있는 점은

-
- 1) 韓興教, 「鐵道警察의 回顧와 展望」, 『鐵警』 창간호, 鐵道警察本隊 公報係, 1951년, 25쪽, 개인소장; 朝鮮通信社, 『朝鮮年鑑』, 1946, 218쪽.; 경찰청, 『경찰50년사』, 1996, 204~205쪽.
 - 2) 감봉룡(甘鳳龍, 1907. 5. 6.~1950. 6. 25); 1961년 4월 15일 전사사실 증명서가 발급되었고, 2014년 8월 27일 대한민국 충무무공훈장이 추서되었다; 전쟁기념관 소장;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의 공로 기억합니다.」, 『국방일보』, 2014. 7. 27.

개성철도경찰대의 용기와 희생을 퇴색시키는 것으로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연구는 개성철도경찰대의 개성역 전투에 관하여, 사실에 근거한 기록과 연관 자료 및 증언들을 발굴하여, 개성역 전투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전사자들의 명단을 찾아, 그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선양할 기초자료를 정리하는 것이다. 또한 개성철도경찰대의 명예회복을 위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관련 자료와 비교 검증하고, 보충하여 ‘북한군의 경의선 철도편승설’을 재규명하고자 한다.³⁾

2. 6.25전쟁 이전 개성철도경찰대의 임무

가. 개성지구의 현황

경기도 서북부에 위치한 개성시⁴⁾는 북위 38도선 남쪽에 위치하여, 분단 이후 1950년 6월 현재, 대한민국 행정구역이었다. 서북 교통의 중심지이었던 개성(開城)은 분단 이후, 북한지역인 신의주로 가는 1번 국도와 남북 종단으로 건설된 경의선 철도시설로 인하여 군사적 측면에서는 지리적 요충지(평양 196km ← 개성 → 73.4km 서울)로써, 수도

3) 연구의 방법과 활용된 사료들은 다음과 같다. 『特殊戰例事例輯』 제1집(內務部 治安局 非常警備總司令部 作戰參謀部, 1951.), 『韓國警察史』 II(內務部 治安局, 1973.), 『한국전쟁사』 제1권(개정판)(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7.), 『韓國戰爭戰鬪史』 9(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5.),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韓國交通動亂紀』(交通部, 1953.) 등이다. 이외 당시 신문기사(1946년~1950년)와 참전자 회고록 및 증언 자료를 관련 문헌과 비교, 검증하여 보충했다. 인명에 관련된 자료는 정부보존문서인 내무부 치안국 철도경찰본대의 인명관련 문서와 전사자 명부를 교차 검증하고, 통계프로그램(Excel)을 활용하여 분석, 집계했다.

4) 1949년 시제(市制)의 실시에 따라, 경기도 개성부가 경기도 개성시가 되었다. 경기도 지방경찰청, 『京畿警察—그 역사와 지리』, 1994, 11쪽.

서울 방어에 결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특히 개성-해주선(협궤도 단선 철도)과 여러 도로가 종횡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도로 및 철로 상에 가설된 교량 중 예성강 철교와 임진강 철교(경의선 철도)는 군 작전상 중요한 지물이었다.⁵⁾

또한 개성 서쪽 예성강과 송악산(松嶽山)은 남저북고의 지형으로 형성되어, 분단 이전에는 개성 이북지역과 자연적인 경계를 이루었지만, 남북을 직선으로 분단한 38경계선은 송악산 능선(稜線)을 통과하게 되어, 송악산 능선이 곧 38경계선이 되었다. 따라서 개성시와 38경계선인 송악산 정상까지의 거리는 불과 3~4km로 북한군의 감시 하에 놓이게 되었고, 이러한 지형적 특성을 이용한 소련군과 북한 38보안대원들은 분단 초기부터 야음을 틈타, 38경계선을 불법 월경(越境)하여 약탈 및 방화, 납치, 살해, 보복 등을 일삼았다.⁶⁾

이처럼 분단 이후, 38경계선은 미국과 소련의 이해가 충돌하는 국경선이었고, 38경계선을 경계하는 국립경찰과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그 인적, 물적 피해가 적지 않았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은 소수의 미군을 주둔시켰을 뿐, 국군은 치안군 규모로 유지하려 했으며, 광범위한 38경계선의 경계임무는 국립경찰에게 전담하게 했다.⁸⁾

三八사선 저편은 독일제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이북보안대와 인민군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늘고 길게 뻗은 경계선을 짚다는 듯이 대군을 배치하고, 틈만 있으면 내습할 기세를 엿보인다. ……三八선 경관들의 매운 눈초리는 그 긴장을 표시하며,

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戰鬪史』 9, 1985, 148쪽.

6) 「保安隊에 拉致 延安支署員四名」, 『경향신문』 1947. 7. 11.; 「鐵의 帳幕 三八線踏査」 (4) 『동아일보』 1947. 9. 26.; 「以北保安隊員 越境 長谷(延白)支署襲擊 殺害. 防火. 掠奪 後 逃走」, 『동아일보』 1948. 1. 7.

7) 「또 巡警被殺 三八線에서」, 『民衆日報』 1948. 4. 1, 국립중앙도서관DB; 內務部 治安局, 『韓國警察史』 II, 1973, 161~168쪽; 「내무. 국방 양 장관 출석요청에 관한 긴급 동의안」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2회(21차), 1949. 2. 3.

8) 「鐵의 帳幕 三八線踏査」 (8) 『동아일보』 1947. 10. 4.; 「開城來襲事件 綜合真相發表」 『경향신문』 1949. 5. 7.

경의선 사수의 굳은 결의는 전선에서 쓰러진 순국동지들의 숭고한 정열을 살려 …… 순간의 것을 용서치 않는다. …… 지난 3개월간 대규모 침입사건만 해도 십여 차례 …… 1월 4일 인민군 부대가 내습, 38선을 경계하던 5명의 경관이 50배의 대군을 맞아 전원 옥쇄의 비극을 낸 長谷사건, 240여명의 인민군들이 내습하여 2시간 동안 격전한 12월 12일 葛山사건, 800여명의 부대가 대거 월경, 내습하여 장시간에 걸쳐 격전이 벌어졌던 1월 24일의 八鶴사건, 1월 8일의 晚松사건, 서장 암살대 체포사건 등등 소수의 우군으로 20배 내지 50배의 우세한 적군들을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싸워 이를 격퇴하는 경관대(警官隊)의 노구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 …… 우리 국립경찰은 국토를 완전히 수호하고, 치안을 확보하여 건국에 이바지할 것이다.⁹⁾

그러나 당시 국립경찰 또한 제주 4.3사건, 여순사건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한 후방 치안유지에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우익청년단체 회원들을 비롯한 지역민들을 경계임무에 동원하기도 했다.¹⁰⁾ 이후, 국군이 전면 배치되고, 남북의 체제경쟁과 북한의 남침 기도가 표면화됨에 따라 38선 접경지역인 개성은 점차 남북의 화약고가 되어 갔다.¹¹⁾

한편 개성의 관문인 개성역은 1906년 4월 3일 개통한 경의선 철도역이며, 해방 이후, 분단으로 양분되어, 1945년 9월 11일 경의선 최북단 종착역이 되었다.¹²⁾ 1946년 3월 15일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한의 우편물이 교환된 역사적 장소가 되었고,¹³⁾ 분단 초기에는 서북

9) 「눈물겨운 三八線踏查記」(1), (2) 『民衆日報』 1948. 3. 31, 4. 1.

10) 김종근(당시, 철도경찰, 38선 경계근무) 증언,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잊지 말자」, 『인제신문』 2011. 6. 22.;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6.25전쟁 참전수기』 III, 2011, 18쪽.

11) 양영조, 『韓國戰爭 以前 38度線 衝突』, 國防軍史研究所, 1999, 173~192쪽.; 「松嶽山에 또 共匪侵攻 國軍大舉出動!」 『경향신문』 1949. 7. 26.

12) 철도청, 『한국철도 100년사』, 1999. 8, 363쪽.; 경의본선(용산-신의주)은 해방 이후, 토해선과 연결하여 용산-토성 구간을 운행했다. 6.25전쟁 발발 이후, 경의본선인 문산-개성구간은 폐지되었다.; 「撤毀했던 鐵路九支線復舊」, 『동아일보』 1945. 12. 26.; 「列車運行一部復舊」, 『경향신문』 1950. 6. 27.

13) 「八朔만에 三八線넘는 郵便物」, 『동아일보』 1946. 3. 16.; 남한 전 지역에서 취합된 북한행 우편물(38이북)들을 실은 우편물수송열차는 도난방지를 위해, 무장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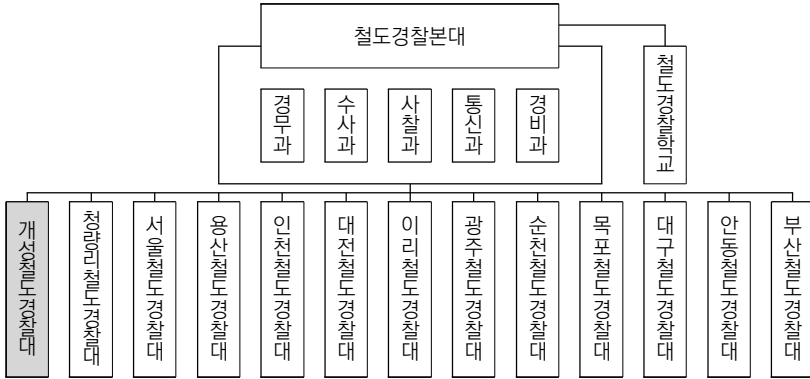
38선 접경지역으로 남북한 주민들의 빈번한 왕래로 남북민들의 발착지가 되기도 했다.¹⁴⁾ 반면, 남한의 치안교란과 요인암살 등을 목적으로 북한 정보원(편의대, 빨치산 등)들과 좌익세력들은 개성지구의 38경계선을 넘나들며 각 철로연선과 기차역으로 잠입, 침투했다.¹⁵⁾ 이처럼 분단 이후, 개성지구의 지리적, 군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철도경찰은 1946년 창설초기부터 개성지구의 ‘38선 전선(全線)의 경비’와 각 철도시설(교량과 연선, 터널 등) 및 철도역에 배치되어 경계임무를 수행했다.¹⁶⁾

나. 개성철도경찰대의 편성과 임무¹⁷⁾

개성철도경찰대는 서울에 위치한 철도경찰본대의 지휘 하에 운용

철도경찰들이 호송했다.; 「防犯萬全에 鐵警서 主要驛에 武警六十名配置」, 『동아일보』 1946. 4. 6.

- 14) 분단 초기에는 만주와 화북지역 등에서 북한지역으로 귀국한 전재(戰災)민들과 상인, 이산가족 등으로 인해, 남북한의 이동이 빈번했다. 38선 접경지구인 개성지구는 매일 수천 명의 탈북 전재민들을 위해, 개성시와 의정부에 전재민 구호소(38이북인 수용소)를 설치했었고, 1949년 8월 15일(기준) 과거 1년 간, 개성지구와 춘천등지의 국영 임시수용소 등에 수용된 전재민 수는 2,246,420명에 달했다. 철도경찰은 이들 전재민들의 수용과 각 지역으로 분산, 이송하는 임무를 담당했고, 개성지구에서 발생한 콜레라 등 각종 전염병의 확산 및 방지를 위해 이들을 격리, 수용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三八線交通路는?」, 「안으로 統一 밖으로 發展」, 『동아일보』 1945. 12. 16, 1949. 8. 15.; 「魔病腦炎去益蔓延」, 『경향신문』 1949. 9. 7.
- 15) 「開城, 延白地方騷擾詳報」, 『경향신문』 1946. 10. 25.; 「要人暗殺團을 打盡」, 『동아일보』 1946. 11. 19.; 「南朝鮮遊擊工作隊起訴」, 『경향신문』 1946. 12. 10.; 「鐵의 帳幕 三八線 踏査」, 『동아일보』 1947. 10. 11.
- 16) 「鐵道警察廳官內 總犯罪約三千件」., 『朝鮮中央日報社』 1947. 10. 15, 국립중앙도서관DB.; 白磷基, 「鐵道와 鐵道警察」, 『月刊法政』 7월호, 法政社, 1949, 20쪽,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17) 개성철도경찰대의 편성 및 임무에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大統領令 第75號」 제1조(1949. 4. 26.), 「內務部職制 第7條 第4項」, 「內務部訓令 第12號」 (1949. 4. 26.), 「內務部令 第2號」 제1조 및 제2조(1949. 6. 15.), 「內務部訓令 第18號」 (1949. 8. 11.); 내무부 기획관리실, 『內務部令 1949~1961』, 1949, 13~16쪽, 64~67쪽, 160쪽, 국가기록원 소장문서(DA0443840); 내무부, 『직원명부 1949. 7 작성 치안본부 절경(청량리. 개성)』 (내무부, 1949.), 국가기록원 소장문서(CA0300190)

〈표 1〉 1950년 6월(기준) 내무부 치안국 철도경찰대의 편성 및 조직¹⁸⁾

되었던 1개 지방 철도경찰조직이었다. 개성역 광장에 위치한 본부에는 경무계, 경비계, 수사계가 있었고, 개성지구의 관할구역 내에 철도 범죄 및 일반 경찰사무를 관장했다.¹⁹⁾ 대장(隊長)과 각 지대, 파출소의 장(주임 또는 소장), 총원, 각 지대(支隊) 및 파출소 설치 등은 ‘내무부령’에 의하여 규정에 의거, 임명, 설치되었고, 관내 상황에 따라 출장소 설치 및 파견대(派遣隊)를 편성하여 배치하기도 했다.

1950년 6월 24일 기준, 개성철도경찰대의 총원은 220명이었으며, 계급별로 구분하면, 대장인²⁰⁾ 경감 1명과 경위 14명, 경사 22명, 순경 184명(형사 13명, 여경 3명)이었다. 각 지대와 출장소 등 관할구역에

18) 「大統領令 第75號」 제1조(1949. 4. 26.)

19) 당시 경무계는 직인관리, 문서수발 편집보관, 경찰인사 등의 사무를 분장(分掌), 수사계는 범죄수사 및 사찰(查察), 경제경찰, 유치장 등에 관한 사무분장, 경비계는 철도시설경비, 이동경찰, 파견대, 위생 및 소방, 공문서발송, 총기 및 무기, 통신, 여경, 외근 근무 배치 및 기획 등의 사무를 분장했다.; 「內務部訓令 第12號」 (1949. 4. 26.); 9.28수복 후, 경비계는 적정(敵情), 작전, 총기 및 무기, 이동, 운전반(班)으로 개편되었고, 각 지대(支隊)는 제1중대, 2중대, 3중대로 구분하는 군편제로 개편되었다.

20) 「警務部 訓令 制26號」 (1948. 5. 5.)에 의거, 경찰서 등급제도는 1급지(총경), 2급지(경감)로 구분했다.; 國立警察專門學校, 『韓國警察制度史』, 1955, 193쪽.; 개성철도경찰대의 대장 계급은 경감이었으므로 2급지로 구분된다.

분산, 배치된 인원수는 경위 급을 제외하고는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표 2〉 개성철도경찰대의 지대의 명칭, 위치, 관리구역²¹⁾

명칭	위치	배치현황 및 관할구역
본대	경기도 개성시 개성역 구내	관할지역 총괄
직할	경기도 개성시 개성역 구내	경의본선 중 개성역(開城驛)-봉동역(鳳東驛) 구간
문산지대 (장, 任德彥 경위)	경기도 파주군 문산역 구내	경의본선 중 금촌역(金村驛)-장단역(長湍驛) 구간
토성지대 (장, 宋在奭 경위)	경기도 개풍군 토성역 구내	경의본선 중 토성역 토해선 중 토성역(土城驛)-성호역(星湖驛) 구간
예성강지대 (장, 金君延 경위)	경기도 개풍군 예성강역 구내	토해선 중 예성강역(禮成江驛)-연안온천역(延安溫泉驛) 구간
연안지대 (장, 경위)	경기도 연백군 연안역 구내	토해선 중 연안역(延安驛)-풍천역(楓川驛) 구간
청단지대 (장, 全國柱 경위)	경기도 연안군 청단역 구내	토해선 중 천태역(天臺驛)-청단역(靑丹驛) 구간

관할 구역은 경의본선 중 경기도 파주군 금촌역에서 경기도 개풍군 토성역 구간(區間)과 토해선 중 경기도 개풍군 토성역에서 경기도 연백군 청단역 구간의 철도시설(철도연선, 교량, 터널 등)과 철도역이었다.〈표 2〉

이외 장단출장소(경기도 장단군 장단역 구내), 금촌출장소(경기도 파주군 금촌역), 배천출장소(경기도 연백군 배천경찰서 구내)가 설치되어 있었고, 특히 예성강지대는 해주(황해도 연백군 운산면)와 토성(경기도 개풍군 서면)을 연결하는 예성강철교(623.4m, 개풍군 연강리)의 중요성으로 파견대가 배치되어 있었다.²²⁾

1947년 5월 27일 전신전화 특별경비대를 조직했었고, 1949년 7월 31일 밤 개성역 구내로 공비들이 포탄을 발사한 사건을 계기로 개성

21) 「內務部令 第2號」 제1조 및 제2조(1949. 6. 15.)

22) 「內務部告示 第5號」 제1조 및 제2조(1949. 8. 27.); 《官保》(第167號), 1949. 9. 1.; 6.25전쟁기인 1951년~1952년에는 한포리(汗浦里: 황해도 평산군 예성강 지역)와 임진강에 파견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역에는 철도경비부를 설치하기도 했다.²³⁾ 1949년 북한의 도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군이 전면 배치된 후에는 후방 철도시설에 대한 경계에 집중하여, 관내 문산역에 지서를 신설하였고, 장단역, 금촌역에는 출장소를 설치하고 경계를 강화했다.²⁴⁾ 1950년 3월 20일 03시경 관하 동두천지대는 지대를 중심으로 내습한 북한군 30여 명과 응전하여 대장을 포함, 격퇴시키는 전과를 올렸고, 동년 3월 21일 22시05분 관하 청단지대는 청단역에 도착한 마지막 열차를 탈취, 월북을 기도한 좌익철도원과 북한요원 2명을 약 1km지점까지 추격하여, 기관차 월북사건을 미연에 방지했다.²⁵⁾

한편 개성주둔 육군 제1보병사단 제12연대와 긴밀한 협조 하에 북한군의 불법내습에 견제, 경비태세로 대비하고 있었다.²⁶⁾ 동년 6월 10일, 내무부 치안국에서는 ‘경찰비상사령부’가 판단한 북한의 대거남침 징후 포착에 따라, 38경계선 접경지역인 경기, 강원 2개도의 경찰에 대하여 ‘갑호 비상근무령(비상경계태세 강화명령)’에 내려졌고, 북한군의 군사동태를 예의 주시하며, 북한군의 남침에 대비하도록 했다.²⁷⁾

23) 「土城地點서 蘇專用電話線을 切斷」, 『경향신문』 1947. 5. 29.; 「開城驛構內에 投彈」, 『동아일보』 1949. 8. 2.

24) 1949년 1월 5일 경기도 수원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제1보병사단 제11연대를 개성지구에 배치했다.; 보병 제1사단, 『진전역사』, 1966, 6쪽.; 「鐵警支署設置, 長短과 金村엔 出張所」, 『경향신문』 1949. 1. 30.

25) 「傀儡軍을 擊退한 鐵警兩巡警進級」, 『동아일보』 1950. 3. 29., 「機關車 越北制止」, 『동아일보』 1950. 4. 6.

26) 『韓國戰爭戰鬥史』 9, 12쪽; 하지만 1949년 5월 12일 당시 경기도 도지사가 정부에 대하여, 개성 송악산 산정에 국군의 상시주둔을 요청하고, “개성시민들은 자기들이 군의 식량과 수도, 전기까지 시설을 부담하겠다는 조건으로 요청을 하고 있다. 개성에는 국군의 상시주둔이 경비상 극히 필요할 줄로 안다.”는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미루어, 당시에는 상시주둔 형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開成에 駐軍必要」 『동아일보』 1949. 5. 13.

27) 『韓國警察史』 II, 1973, 239쪽.

3. 개성철도경찰대의 개성역 전투 분석

가. 전투경과

1) 북한의 개성공격

국방부와 내무부 치안국 경찰비상사령부의 판단과 같이, 북한군은 1950년 6월 23일까지 남침공격준비를 완료하고, 남침계획을 위장하기 위해 동년 6월 중순부터 긴급명령으로 북한 38선 접경지역의 주민들을 북방으로 4km~6km 소개(疏開)했다.²⁸⁾ 북한 38선 경비대는 북한 정규군과 교체되어 후방 제2선 지구를 담당하게 했고, 동년 6월 12일, 기동훈련을 가장한 남침공격부대들은 각 사단의 주둔지를 출발하여, 동년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38경계선의 계획된 공격대기 지점의 점령을 완료했다.²⁹⁾

개성을 침공한 북한군 제1군단 제6보병사단(사령부, 경기도 개풍군 계정리)은 주둔지인 사리원(개성 서북방 12km)에서 기차로 이동하여, 동년 6월 18일, 750고지(제석산, 금천 동남방 6km), 국사동(제석산 동방 7km), 와룡대(개성 동북방 18km, 현, 장풍)지역에 투입되었고, 사단예하 1개 보병연대, 1개 포병대대 및 자주포대는 서해연안에서 예상강까지를 경비하고 있던 제2경비여단의 보강에 투입되었다. 제203전차연대(본부, 황해도 금천군, 개성 북방 22km)는 각 사단별로 1개 대대를 배속했고, 제206기계화연대(공병여단)는 임진강 도하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사단 지역에서 집결, 대기하고 있었다. 예비

2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기습공격」, 『군사참고』 1, 1984, 63~65쪽.; 김 혁(전, 인민군 대좌) 증언, 「6.25南侵의 眞相은 이렇다」, 『경향신문』 1962. 6. 25.

29) 정규환(당시, 제17연대 제12중대 대위) 증언, 「1950년 6월 25일 새벽 4時...當時一線指揮官들의 證言」, 『경향신문』 1973. 6. 2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 1, 1987, 46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001, 134~135쪽.

사단인 제13보병사단은 남천(황해도, 평산군)일대에 집결하고 있었다.³⁰⁾

개성침공 준비를 완료한 북한군 제6보병사단은 1개 제대 전투대형을 구축하고, 사단예하 제15연대는 고령리(개성 서북방 6km)와 488고지(송악산, 개성 동북방 4km)의 남쪽 사면(斜面) 구역에서 국군을 섬멸하고, 풍덕리(개성 서남방 13km) 방면으로 공격을 확대하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북한군 제13연대(3개 대대 제외)는 송악산 488고지 동쪽 사면과 산직동(송악산 서방 14km) 지역에서 개성-덕산리(개성 동남방 16km)방면으로 공격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³¹⁾ 이러한 북한군 제6보병사단 예하 2개 연대의 전투 정면은 25km로 개성주둔 국군 제1보병사단 제12연대의 방어지역이었다.³²⁾

그러나 개성주둔 국군 제1보병사단 제12연대는 6월 24일 총 병력의 1/3인 754명의 휴가 및 정기외박이 실시되어, 잔류 병력은 1,461명이었고,³³⁾ 연대의 미 고문관은 1명만이 남아 있었다.³⁴⁾ 따라서 개전 당일, 국군 제12연대에 일선 진지 제2, 제3대대의 경계 병력은 불과 800명이었고, 전투정면은 84km의 광정면이었다. 때문에 52km 전투정면인 연백지구는 제3대대를, 32km 전투정면인 개성지구는 제2대대를 전술적인 요지에만 중점 배치했다.³⁵⁾

30) 『라주바에프의 6.25전쟁보고서』 (1), 134쪽.; 『韓國戰爭戰鬪史』 9, 149~150쪽.

31) 『라주바에프의 6.25전쟁보고서』 (1), 147쪽.

3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2권), 2005, 25쪽.

33) 보병 제1사단, 『진진역사』, 1966, 47쪽.; 당시, 잔류 병력에는 취사병과 당번, 시설 감시병, 환자 등이 포함된 인원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 1, 2003, 72쪽.

34) “주한미군 군사고문단의 고문단장은 정년퇴임으로 1950년 6월 15일 미국으로 돌아갔고, 후임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미 군사고문단의 참모장과 차장도 출장과 휴가로 서울을 떠나 일본에 있었다.”; 문학동, 『산 넘어 바다 건너』, 서당, 1992, 125쪽.

35) 『진진역사』, 47쪽.; 개성주둔 국군 제1보병사단 제12연대 제2대대(본부, 개성103고지)는 개성 북쪽 38분계선(개성에서 송악산 정상까지의 거리는 3km)에서 예성강-청학동, 송악산 남사면 무명고지-소반고개 간 20km에 이르는 방어지대에 좌

즉 개성을 침공하는 북한군 제6보병사단 예하 2개 연대의 전투정면은 25km이었고, 개성을 방어하는 국군 제12연대 제2대대의 전투정면은 32km이었다는 것이다.³⁶⁾ 더욱이 당시 북한군은 남침작전의 후방지원을 위해 아군 군복으로 위장한 일부 병력을 개성시내로 잠입, 침투시켰고, 이들은 작전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대기 중이었다.

개성에서 남하한 전투경찰 대원들은 '6월 24일 23시경, 개성경찰서로부터 불과 40m 떨어져 있는 만월초등학교 교정에 **국군 복장을 한 1개 대대 병력의 부대가** 야영을 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이들은 시내를 삼삼오오 몰려다니며 우의 인사들을 색출했으나, 군인들은 거의 모두가 외출 중이었고, 경찰서에도 20명 정도가 야근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³⁷⁾

6월 25일 일요일 새벽, 북한군은 38선 전 지역에 7개 사단의 배치를 완료한 후, 대기 중인 전군(全軍)에 대하여 선제타격 공격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개성지구에 잠입, 송악산을 침거하고 있던, 북한군 제6보병사단 제13연대와 제15연대는 개성공격을 개시했다. 북한군 제13연대는 개성 일원을 감제하는 송악산 정상을 발판으로 개성 북방에 배치된 국군 제12연대 제6중대와 제7중대의 방어지역에 일부병력을 침투시켜, 우측 제일선인 제7중대(소대병력), 292고지(일명, 비둘기고지, 송악산 38선상에서 약 200m 지점)를 점령하고, 제7중대 관측소에 적기(북한)를 쫓았다. 이어 아군의 488고지로 진격 포탄을 집중함과 동시에 아군이 배치되지 않은 지점을 우회하여, 후방에서 공격을 가함으로써 순식간에 아군 진지를 무력화시켰다. 북한군 제15연대

로부터 제5중대(여현 남쪽 1km 지점), 제6중대(사직동, 개성 북서쪽 2km 지점), 제7중대(영진동, 개성 북동쪽 2.6km) 순으로 3개 중대를 배치하고 있었다.; 『韓國戰爭戰鬪史』 9, 153, 157쪽.

36) 1950년 6월 24일(현재), 개성, 문산 축선에 투입된 북한군 2개 보병사단의 병력은 약 25,000명(1개 전차연대와 기타 지원부대 포함)이었고, 화력은 전차 약 40대, 야포 약 190문이었다.; 『韓國戰爭戰鬪史』 9, 15쪽.

37) 김억순(당시, 부평경찰서 서장) 증언, 「1950년 6월 25일 새벽 4時...當時 一線指揮官들의 證言」, 『경향신문』 1973. 6. 22.

또한 공격준비사격과 동시에 1번 도로를 따라 개성시가지로 돌진하기 시작했다.³⁸⁾

이 무렵, 북한군을 목격한 최응표(당시, 개성 송도중학교 학생)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북한군이 개성 송악산을 넘어, 개성시내에 진입한 시간은 대충 04시 30분에서 04시 40분경으로 기억한다. 송악산 기슭에 있던 기숙사 주변에 국군으로 위장한 인민군이 짝 깔렸다는 소식에 …… 본교 지하실로 대피했고, 잠시 후 지하실 창문으로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비친 물체는 포복자세로 교정을 뒤덮은 인민군들이었다. 이때가 04시 40분경이 아닌가 싶다.³⁹⁾

그러나 그 시각, 개성역 광장에 위치한 개성철도경찰대 본부 건물에는 대원 2명만이 당직근무 중이었다. 당시 당직근무대원이었던 통신병 현효진 순경은 개전 당일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송악산 아래, 약 700m~800m쯤 되는 조그만 야산이 있어요. 본부에서는 한 2km 이상 될 겁니다. 새벽 3시인가, 4시쯤 본부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산에 군인들이 짝 깔렸었어요. 군인들이 서로들 손을 잡고, 8줄로 서서, 그 산을 돌아가면서 주~욱 휘감고 있었어. 근데 그게 괴뢰군들이야. …… 그날, 개성엔 국군이 없었어요. 군인들이 다 휴가 나가서 ……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지, …… 그때 용산(본대)에 보고를 했어요. …… 아침에도 퇴근 준비를 하려고, 세수를 하다 산을 올라다보니까, 그 군인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 …… 한 6시쯤 되니까 ‘슈슈슈슈’ 하더니, ‘퐁’ 하고 포탄이 터져요. …… 개성역 바로 뒤가 과수원인데, 그 주인집이 ‘폭싹’ 했다고, …… 우리 개성철도경찰대에서 보면, 길 건너 아래쪽(서남쪽)이지, 그러니까 그게 개들 신호탄이야, 개들 신호탄을 거기다 대고 쏜 거야. …… 그런데, 그 산에 있던 그 괴뢰군들이 싸악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개들이 그 전투터 그 신호탄을 보고, 듣고, 작전개시, 내려 온 거지, …… 그땐 괴뢰군들이 내려오니까, 상황이

38) 『韓國戰爭戰鬪史』 9, 158쪽.

39) 최응표(한미자유수호 운동본부 상임대표) 증언, 「6.25남침의 선봉부대는 모택동의 팔로군이였다.」, 『조갑제 닷컴』, 2011. 6. 11.

급박하니까 본대에는 유선으로 보고했지요. …… 그땐 전투가 없었어요. 개성엔 국군이 없었으니까, 전투가 있겠어요? 개들이 그냥 밀고 올라 온 거지, …… 송악산에서 포탄이 터지면, 본부에서 다 들리죠. 개들 신호탄이 터지기 전까지 포탄소리는 못 들었어요. …… **그때 그 괴뢰군들은 국방색, 국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 개네들은 산에서, 송악산 그 산에서 내려왔어요. …… 내가 개성역을 출발할 때까지 개성역으로는 안 들어 왔어요.**⁴⁰⁾

이와 같은 개전 당일 북한군을 목격한 두 증언을 정리하면, 개성시를 공격한 북한군은 ① 03~04시경 송악산을 점거하고 대기 중이었다. ② 당시 아군 군복으로 위장한 상태였다. ③ 개성시 공격신호탄을 민간인 거주가옥을 표적으로 발사하여, 민간인 가옥을 파괴되고, 민간인이 살상되었다. ④ 개성시 공격 신호탄 발사와 동시에 송악산에서 내려와 개성시를 공격했다.

한편, 현 순경의 통신보고를 받은 철도경찰본대(서울) 통신과는 개전 당일 새벽, 총 4명(유·무선 통신)의 대원이 당직근무 중이었다. 당시, 현 순경과 교신한 무선통신 담당 조태중 경사의 회고는 다음과 같다.

03시가 넘어 개성철도경찰대 통신병 현 순경으로부터 긴급 구조신호인 ‘개성SOS’가 계속 들어왔다. 04시경, ‘개성SOS’의 내용은 “조 경사님, 나 저기, 나 마지막입니다. 인민군에 포위됐기 때문에 후퇴합니다. 다시 연락 안 됩니다.” 그제 마지막이었다. …… 현 순경과의 통신내용은 즉시 상부에 보고했고, 이는 내무부 치안국을

40) 현효진(당시, 개성철도경찰대 통신병) 증언, 전화 인터뷰, 서울, 2016. 7. 4, 5, 15, 28.; 당시 4개월 차, 신입 순경이었던 현 순경은 개성이 함락된 이후, 일반경찰과 합류하여, 지리산 공비도벌대에 배치되었다. 현 순경의 기억에 의하면, 당시 ‘개성철도경찰대의 본부는 50평 규모의 단층구조 건물이었으며, 본부 상주직원은 약 30~40명이었다. 통신실은 경무계 내에 있었고, 무기고는 건물 내 경비계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보유 무기는 켈빈M1, 99식 소총과 수류탄이며, 기관총 등 중화기는 없었다. 하지만 개성철도경찰대에서 개성 시내방향으로 약 80m 거리에 위치한 개성경찰서에 무기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전 당일 개성경찰서와는 연락이 두절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각 지방철도경찰대에서는 기관총 등 중화기를 완비하고 있었고, 보안 및 본부 건물의 협소 등으로 무기고는 별도의 장소를 사용했다.; 김정웅(철도경찰학교 31기), 인터뷰, 서울, 2014. 10. 31.

통해, 6.25전쟁 발발을 경무대에 최초로 전달된 것이다.⁴¹⁾

하지만 현 순경은 조 경사가 증언한 ‘개성SOS’의 마지막 통신은 북한군의 신호탄이 발사된 이후, 유선으로 보고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조 경사의 증언은 현 순경이 북한군을 최초로 목격한 03~04시경 제1보(무선통신)와 북한군의 신호탄이 발사된 직후인 06시경 송신한 제2보(유선통신)를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2) 작전명령 및 경과

개성철도경찰대의 전투를 최초로 기록한 문서는 1951년 6월 25일 ‘6.25전쟁 발발 1주년을 기해, 송고한 조국애로 산화(散華)한 수많은 선배, 동료(僚友)들을 상기하며’, 내무부 치안국 비상경비총사령부 작전참모부에서 작성한 『特殊戰例集』 제1집이다.⁴²⁾ 이후 『特殊戰例集』의 기록을 기술하고 있는 문헌 및 자료들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기록의 변형이 발견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초의 문서인 『特殊戰例集』의 기록을 토대로 추가된 증언들과 연관 기록을 보충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特殊戰例集』은 개전 이후, 약 1년간의 경찰전투 중 특수하게 이례적인(特殊異例) 전투에 해당되는 사례를 모아 편집한 경찰전투교본이다. 수록 내용은 제1부 공격(총 19예), 제2부 방어(총 12예) 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성역 전투는 제2부 방어 편, 제1예(例)에 수록되어 있는 ‘개성철도경찰대의 옥쇄(玉碎)’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① 일시 : 1950년 6월 25일 05시 30분 ② 교전장소 : 경기도 개성철도경찰대 본부

41) 조태중(당시, 철도경찰본대 통신과 경사) 증언, 「6.25세대와의 대화」, 『1950..서울..』, 서울역사박물관 전시운영과, 2010, 160~161쪽.

42) 內務部 治安局 非常警備總司令部 作戰參謀部, 『特殊戰例集』, 1951, 46~48쪽, 경찰대학 소장.

③ 교전병력 : 개성철도경찰대 대원 50명과 북한군 1개 사단 이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투가 벌어지기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① 6월 25일 새벽을 기하여 북한 괴뢰집단은 남침의 야망을 실천에 옮겨 38선 일대에 걸쳐 대병으로 월남, 침공을 감행함. ② 아군의 송악산 292고지를 확보한 적은 아군이 확보한 488고지에 진격포탄을 집중하면서, 일부 병력을 개성시내로 돌입함. ③ 국군은 일요일 외출로 잔여 소수 병력이 경무장으로 단시간 응전하였으나, 적의 압박으로 후퇴를 부득이 함. ④ 적의 첩병대는 복장이 국군과 흡사하여, 이로 인하여 헌병대는 완전포위 점령당하였음.'⁴³⁾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후 개성철도경찰대의 조치인 방어전투를 이 연구에서 '개성역 전투'라고 명명하고, 시간대별로 기록된 『特殊戰例集』의 작전경과 및 전투요도를 바탕으로 전투의 전개과정을 재구성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개성역 전투 작전명령⁴⁴⁾

命令 4283. 6. 25. 5. 30 於 開城鐵道警察隊本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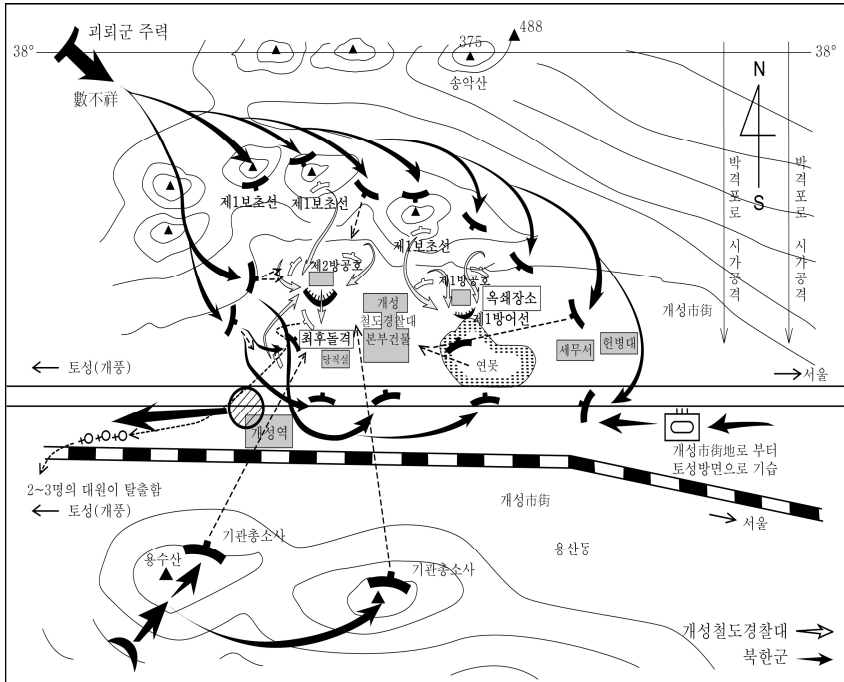
1. 敵은 大兵을 動員하여, 三八線 全域에 巨한 大舉南侵을 企圖하고 있다.
2. 本官은 軍作戰에 呼應하여, 職場을 死守하는 同時에 該敵을 殘滅코저 한다.
3. ㄱ. 副官 警衛 洪利和(警備主任)는 于先 集合된 兵力을 本部 後山과 本部 및 鐵道建築物 等 警備에 當게하고 來襲하는 敵을 殘滅하라.
- ㄴ. 警衛 朴俊鎬(查察主任)는 私服員 2名을 合同情報部에 派遣하여 隨時로 變動되는 敵情을 本官에 電話連絡하라.
- ㄷ. 各 支隊, 出張所, 派出所 主任은 現地 一般 署와 緊密한 連絡 下 職場을 死守하는 一方, 來襲하는 敵을 殘滅할지며, 電話杜絶 時는 一般 署와 合流 行動하라.
- ㄹ. 各 單位 指揮官은 戰鬪狀況을 其時其時 本官에게 電話報告하라.
4. 省略
5. 本官은 定位置에 在한다.

開城鐵道警察隊長 警監 甘 鳳 龍

43) '국군복장으로 위장한 북한군 제105전차여단 예하 제203전차연대의 1개 대대의 첩병대(尖兵隊)는 소련제 탱크(T-34) 3대를 금천(金川)으로 부터 1번 도로를 따라 남하하여, 명륜동 삼거리(개성시내 서쪽 4km지점)의 아군 헌병검문소의 초소 입초 헌병을 속이고, 검문소로 돌진하여 아군헌병들을 압사시켰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개정판), 1977, 411쪽.

44) 『特殊戰例集』, 46쪽.

〈요도 1〉 개성철도경찰대의 전투경과 요도(원본과 동일하게 제작함)⁴⁵⁾



05시 30분, 대장은 비상 소집된 대원 50명 전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고, 각 요소(방어지점)에 대원들을 배치, 전투태세를 완비했다. 전투요도인 〈요도 1〉을 보면, 대원들의 전투배치에 적용된 제한요소는 북한군의 공격방향, 방어병력, 주전장의 지형 및 위치, 민간인 대피구역인 방공호이며,⁴⁶⁾ 소집된 50명의 병력을 최소 분대병력(4~5명)으로 '본부 뒷산과 본부 및 철도건물 등' 10개 지점으로 분산, 배치하여 방어선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대원들의 전투배치는 첫째, 북한군 주력의 공격방향인 서북방을 기준으로 전면방어를 위해 제일선 3개 지점에 제1보초선을 두고, 개성역 전방까지

45) 『特殊戰例集』, 48쪽.

46) 交通史 編纂委員會, 『韓國交通動亂記』, 交通部, 1953. 55쪽.

중심 배치했다. 둘째, 민간인 대피구역인 제1방공호는 제1방어선으로 본부 건물과 지형(연못)을 엄폐물로 이용,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제2방공호는 사주경계로 제2방공호 입구에 전진 배치했다.⁴⁷⁾

06시, 북한군이 개성시로 돌입, 시가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요도 1>을 살펴보면, 제일선인 3개 지점의 제1보초선 가운데 서북방 좌 제일선 제1보초선에서는 철수병력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전투 개시 후, 병력과 화력으로 차이로 순식간에 배치병력이 전멸된 것으로 추정되며, 같은 이유로 추정되는 2개 지점의 제1보초선이 제1, 제2방어선으로 철수, 합류한 것이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지형과 위치상 주전장 또한 사방이 개방된 개성역 광장이었으므로 대원들을 에워싸고, 포위망을 좁혀오는 북한군의 사격권에 노출되어, 상대적으로 공격에는 불리한 조건이었다. 반면, 북한군의 주공은 <요도 1>에 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여러 방면에서 목표를 향해 진출하면서 적을 포위, 격멸하는 분진합격(分進合擊)의 전법으로 개성시 서북방(송악산)에서부터 대원들을 압박하며 포위했고, 동시에 조공은 개성역 남방 용수산 고지에서 기관총과 개성 동북방의 박격포 지원공격으로 아군의 지원과 대원들의 퇴로를 차단하는 병진(竝進)전술을 전개했다.⁴⁸⁾

07시 30분, 통신이 두절되고, 개성역 전방도로에 배치된 대원들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자, 사면이 포위되어 전장에 고립되는 상황이 되었다. 대장 이하, 전 대원들은 최후를 각오하고, 북한군을 향해 탄환(캘빈 M1, 99식 소총)을 집중하여 공방전을 펼친 결과, 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이 되었다.

08시경, 전투경과 30분 후, 개성 시내 동쪽 방향에서 북한군 기갑

47) 대장의 작명에는 개성역 건물에 대원들이 배치된 것이 확인되나, 전투요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은 개성역이 06시경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의 기습공격으로 개성역에 배치된 대원들은 주전장인 개성역 광장으로 철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개성역 전투의 전투경과 요도는 06시 이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48) 『韓國戰爭戰鬪史』 9, 5쪽, 참고.

부대의 T-34 탱크 5대가 개성시내로 돌입, 개성역 방향으로 진격하여 대원들의 후면을 통과하며, 엄폐물인 본부건물을 파괴했다.⁴⁹⁾ 본부 건물이 파괴되자, 동시에 북한군의 박격포와 기관총 공격이 대원 전원을 향해 집중되었다. 결국 대장이 지휘하던 제1방어선이 무너지게 되었고, 대원들은 부득이 제1, 제2 방공호로 분산, 산개하게 되었다. 대원들을 제1, 제2 방공호에 고립시킨 북한군은 포위망을 더욱 압박하기 위해, 방공호 내로 수류탄을 투척하고, 집중사격을 가했다. 죽음을 각오한 대원들은 최후의 일각까지 혈투할 것을 결의하고, 방공호를 뛰어 나와 방어전을 이어갔다. 이때 대원들 반수 이상이 전사했다.

08시 30분, 고립된 대원들은 적진을 향한 최후의 돌격으로 옥쇄(玉碎)를 감행하여, 대장을 포함한 제1방공호의 대원들은 북한군의 집중사격을 받고 전원이 전사했다. 옥쇄 직전, 제2방공호의 대원 3명은 사선을 뚫고 탈출했다.

이상, 『特殊戰例集』의 기록을 바탕으로 살펴본 개성역 전투의 전개 과정을 연관 기록과 증언들을 통해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장과 대원들은 전투가 벌어지기 이전, 국군 제12연대 중대원들의 철수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장의 작전명령에서 ‘군 작전에 호응하여’라는 내용은 개성역은 경의선 노선이 서울까지 이어진 군사적 요충지이었음으로 당시 개성 교외에 위치한 국군 제12연대 본부(경기도 개풍군 강릉, 개성 남쪽 3.6km 지점)⁵⁰⁾의 지원공격을 예견한 방어 및 지연전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전 당일은 북한군의 동시다발적인 새벽 기습공격으로 국군의 전방경계가 쉽게 무너졌기 때문에, 북한군은 기동로를 따라 T-34 전차를 앞세우고 전진하여 순식간에 개성시로 진입했다. 이처럼 가속된 진격속도로 북한군은 개성시내의 각 도로를 봉쇄, 차단함으로써, 국군 제12연대 본부의 지원을 조기에 봉쇄했고, 개성철도경찰대의 퇴로를 차단하고 고립

49)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 1, 759쪽.

50) 홍리화(당시, 개성철도경찰대 경비주인) 증언, 『6.25전쟁사』 (제2권), 133쪽.

시켰다. 더구나 당시 개성에는 포병지원이 없었기 때문에⁵¹⁾ 북한군을 저지할 대항무기가 없었던 국군 제12연대 본부 또한 큰 타격을 받고, 연대가 거의 와해되어 철수하게 되었다.⁵²⁾ 따라서 당시 대장은 개전 당일 북한군의 진격속도와 개성시 공격이 전면전이었던 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빈약한 무기와 소수의 병력으로 전투를 감행한 대장의 결정에 대하여, 일면 무모한 판단이라는 시각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개전 당시 38선 접경지역의 국립경찰에게는 ‘갑호 비상경계령’이 내려진 상황이었다. 개전 당일, 북한군의 전면남침이 개시되자, 전방의 경찰국장들에게 “즉각 전투태세로 전환하고, 각 지서는 전투경찰대대를 편성하여 대처하되, 경찰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전투를 수행하라고 명령하고, 각 경찰대대는 해당지역의 군부대와 협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⁵³⁾ 따라서 대장의 결정에는 이러한 비상경계령에 의한 자구적인 조치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주목되는 점은 대장의 작전명령에서 ‘직장을 사수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韓國交通動亂記』의 기록에서도 개전 당일, 북한군의 침공에 당면한 38선 접경지역의 각 역장들에게, 상부에서 내린 지시는 모두 ‘직장사수’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이다.⁵⁴⁾ 더구나 당시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이 개성역을 침공하여, 아침통근열차의 기관차를 빼앗겼다.’는 급보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인 개성역장에게 ‘빼앗긴 기관차를 도로 찾고, 직장을 이탈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당시 서울운전사령이었던 이종림은 ‘당시에는 전쟁이 발발했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으나, 부하 역장에게 직장을 사수하도록 명령을 하면서 ... 불안감을 지워 버릴 수가 없었다.’고 술회했다.⁵⁵⁾ 따라서 기록으로 확인되지

51) 노재현(당시, 제6포병대대 대장), 장경석(당시, 제6포병대대 부대장) 증언, 육군 군사연구소, 『포병과 6.25전쟁 증언록』, 2012, 141~142쪽, 343쪽.

52) 歩兵 第11師團, 『花郎部隊戰史』, 1986, 95쪽.; 『韓國戰爭戰鬪史』 9, 223쪽.

53) 『6.25전쟁사』 (제2권), 60쪽.

54) 『韓國交通動亂記』, 48~59쪽.

는 않지만, 대장이 전투를 감행한 배경에는 개전 당일 전쟁이 발발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철도경찰본대 또는 작전명령에 언급된 ‘합동정보부’의 지휘부에서 정확한 전황을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진 ‘직장사수’라는 명령에 따라, 전투를 감행했을 가능성도 있다.⁵⁶⁾

셋째, ‘통신이 두절되었다.’는 것은 당시 국군의 통신망이 차단된 점으로 미루어 북한군에 의해 차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당시 경찰통신망은 군과 별도로 운용되었고, 설비 및 장비 면에서 도 우수했다.⁵⁷⁾ 또한 당시 북한군의 통신기술과 장비를 고려해 볼 때, 경찰의 유·무선 통신망을 조기에 모두 차단시켰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⁵⁸⁾ 따라서 이와 연관된 증언들과 기록들을 살펴보면, ① 김억순(전, 개성경찰서 사찰주임)은 ‘04시경, 개성, 용진을 관할하는 이하영(당시, 경기도 경찰국장)으로부터 “38선이 뚫리고, 개성, 용진이 떨어졌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증언을 했다.⁵⁹⁾ 이는 경찰보고 체계상,

55) 「이 한장의 사진 그때 이런 일들이(12); 달리는 景武臺, 『경향신문』 1983. 10. 22.; 이종립은 개전 당일, 북한군의 개성공격에 관한 급보는 당시 교통부 장관을 통해 경무대에 최초로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56) 국군 제1보병사단은 1950년 5월초 사단 책임지역인 38도선 경비와 북한군의 침공에 대비, ‘개성주둔 제1보병사단 제12연대는 대원리-청단 간의 38도선 경비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적 침공 시 의명(依命), 지역 내에서 적을 최대한으로 지연시키면서 예성강 동쪽(개성지역)부대는 임진강(교)으로 철수하고, 상황이 긴급할 시 영정포(領井浦)를 경유 해군 주정(舟艇)으로 문산 부근에 철수하라. 예성강 서쪽(연백-청단지역)부대는 석포(石浦: 白石里)를 경유, 해군 주정(舟艇)으로 문산 부근에 철수하라. 연대가 문산으로 철수한 다음, 사단예비가 될 준비를 하라.’는 유사시 사단의 작전 및 철수계획이 하달되었다.; 李柱成, 『戰略戰術其他研究를爲한 資料集』, 步兵 第1師團 第11聯隊, 1978, 54쪽.

57) 1948년 9월 2일 조병옥(당시, 경무부장)은 경찰관 이양 조건 중 ‘경찰통신망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장비로 설치한 것이니, 손실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國立警察創設」31, 『중앙일보』 1974. 11. 18.

58) 『라주바에프의 6.25전쟁 보고서』(2), 106~108쪽.; 이영식, 『빨치산』, 행림출판, 1988, 110, 114쪽.

59) 김억순(당시, 부평경찰서 서장) 증언, 「1950년 6월 25일 새벽 4時...當時 一線指揮

상급기관인 치안국과 내무부에 사전보고가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개전 당일 북한군의 남침 제1보를 방송한 위진록(전, 서울 중앙방송 아나운서)은 04시 30분경 ‘육군본부로부터 개성이 이미 북한군에 함락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고, 방송을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⁶⁰⁾ 그렇다면 개전 당일 04시~04시 30분경부터 내무부 치안국과 국방부에서는 북한군의 ‘개성침공’과 동시에 ‘개성함락’을 예견했고, 07시경에는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는 것이다.⁶¹⁾

② 당시 경찰통신망에 대한 기록에서 ‘남침지구와 아방간의 선로를 신속히 절단함으로써, 통화비밀을 유지했다.’⁶²⁾는 점이다. 대장의 작명에서 ‘통신두절시 일반경찰과 합류하라.’는 내용은 경찰작전상 유사시, 통신이 단절된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개전 당일 개성지구 각 경찰서의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당시 당직 근무자에 해당되는 인원이었다. 이는 사망(전사 및 순직)한 당직 근무자들은 철수명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개전 당일, 경찰 ‘갑호비상경계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성, 용진지역의 경찰통신망을 조기에 차단시켰을 가능성도 제기된다.⁶³⁾

넷째, 국군의 철수를 인지한 상태에서, 일요일 새벽, 50명의 대원이 집결하여 전투배치를 완료했다는 점과 대장은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전투대형으로 전투를 전개했다는 점 등은 비상시 소집훈련 등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덧붙여 이 무렵, ‘청단,

官들의 證言」, 『경향신문』 1973. 6. 22.

60) 「6.25 북한군 남침, 9.28 서울수복 1보 방송한 전설의 아나운서 위진록」, 『서울신문』 2013. 10. 23.

61) 백선엽, 『군과 나』, 大陸研究所, 1989, 28~30쪽.

62) 『韓國警察史』Ⅱ, 515쪽.

63) 인명피해 현황은 여현지서와 청단지서 부상 3명, 연안지서-사망 5명, 배천지서-사망 17명, 장단경찰서-사망 15명, 과주경찰서-사망 4명, 부상 1명이다. 개성경찰서는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다.; 『韓國警察史』Ⅱ, 250~251쪽.

연안지구를 침공한 북한군은 국군 제12연대 제3대대 제11중대에 대하여, “개성과 연안은 인민군이 이미 점령하였으며, 예성강 철교도 파괴되었다. 국방군은 퇴로가 완전히 차단되었으니, 항복하라.”는 내용의 대남방송을 되풀이 했다.⁶⁴⁾ 이 같은 증언으로 미루어, 당시 민간인인 대원들에게도 북한군의 투항권고 또는 회유작전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대원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투항하지 않고, 방어전을 전개한 점 등은 대원들이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다섯째, 북한군의 방공호 공격 당시, 대원들이 죽음을 결의하고, 방공호 밖으로 나온 이유는 개성역 철도원들의 증언과 같이, 방공호에는 철도원들과 민간인들이 피신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⁶⁵⁾ 또한 제2방공호의 대원 3명이 탈출하기 직전, 대장 이하 대원들이 옥쇄를 감행한 점은 전. 후 상황으로 볼 때, 이들의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최후의 공격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원들의 희생정신과 관련하여 1950년 5월 말 기준, 개성시 인구는 174,593명이었고, 개성철도경찰대 관하 경의선 노선지역의 주민은 420,237명이었다.⁶⁶⁾ 그러나 1950년 3월 25일 작성된 육군 제1보병사단의 방어계획은 유사시, 청단, 백천, 개성을 포함한 1,200km²에 달하는 지역을 포기한다는 것이었다.⁶⁷⁾ 이 같은 방어계획은 결국 이들을 포기한다는

64) 『韓國戰爭戰鬪史』 9, 162~163쪽.

65) 『韓國交通動亂記』, 交通部, 1953. 55쪽.

66) 경기지방경찰청, 『京畿警察史』, 2008, 29쪽.; 육군본부는 1950년 5월 25일부터 1개월 간,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기갑연대 장갑 1개 중대를 동원하여, 북한군에 대한 무력시위 및 주민들에게 선무활동을 했다. 그러나 유사시, 주민들에 대한 소개 작전은 계획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당시 미 군사고문단은 1949년 7월 14일 마련된 크롤러 계획(Plan Cruller)에 따라, 개전 당일 미국인 소개 작전에 들어갔다.; 『한국전쟁사』 제1권(개정판), 398쪽.; 박동찬, 『주한미군사고문단 K MAG』, 한양대학교출판부, 2016, 239~241쪽.

67) 1950년 3월 25일 작성된 육군본부 ‘작명38호(육군방어계획)’는 1949년 12월 작성된 미 군사고문단의 ‘반년간 보고서(Semi-Annual Report)’에 기초한 방어계획이라는 주장도 있다.; 『韓國戰爭戰鬪史』 9, 152쪽.; 『주한미군사고문단 K MAG』, 194~199쪽.

의미이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개성시민들은 ‘38선 접경 지역민으로서, 북한군과의 잦은 군사적 충돌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반공정신이 투철했고, 도시민으로서 긍지도 대단했다.’⁶⁸⁾ 그리고 전사자 명부를 살펴보면, 개성역 전투로 전사한 대원들 대부분은 당시 개성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개성시민들이었다. 따라서 개성역을 사수하기 위해 전투를 감행한 이유 중 하나는 대원들의 가족은 물론 이웃이기도 한 개성시민들의 유일한 탈출로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나. 전투시간

개성역 전투의 경과시간은 앞서 살펴본 기록과 관련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통신병 현 순경은 북한군의 신호탄이 발사된 시간은 06시경이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본대 통신과 조 경사는 북한군의 공격시간이 04시경, 김억순 경감은 ‘04시경 개성이 함락되었다는 정보를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처럼 6.25전쟁에 관한 기록과 일부 간접증언 등에서 시간의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일부 6.25전쟁에 관한 학습된 정보 및 시간경과에 의한 기억의 왜곡 또는 유사성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1950년 6월 기준, 한국에서는 한국 표준시보다 1시간을 빠르게 설정하는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⁶⁹⁾이 실시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당시의 일간지들을 살펴보면, 공식적인 6.25전쟁의 개전시간인 04시를 05시로 기록하고 있다.⁷⁰⁾

68) 「非常對委를 結成」, 『동아일보』 1949. 8. 24;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 1, 75~7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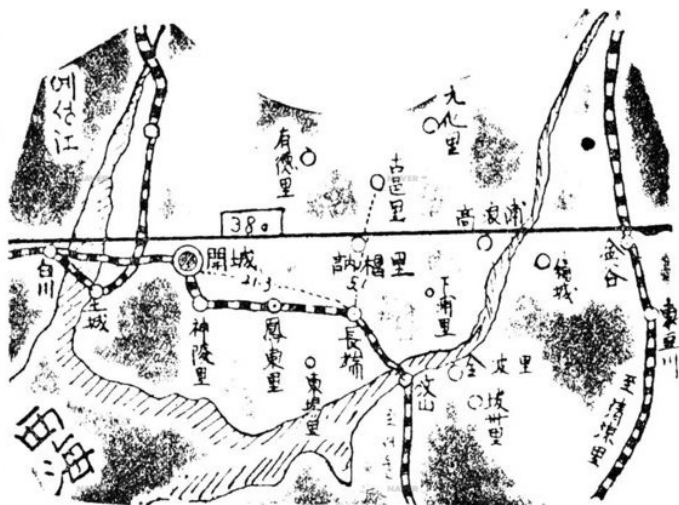
69) 서머타임(summer time)제도의 시행은 1950년 4월 1일 00시부터 동년 10월 10일 까지 실시되었다; 「섬머타임 四月一日부터」, 『동아일보』 1950. 3. 30; 「戰爭日誌」, 『경향신문』 1950. 10. 13.

70) 「傀儡軍全面南侵企圖」, 『경향신문』 1950. 6. 26; 「傀儡軍 突然南侵을 企圖」, 『동아일보』 1950. 6. 26; 1950년 12월 5일 발간된 『韓國의 動亂』은 6.25전쟁 개전시간을 04시로 기록하고 있다; 예관수, 조규동, 『韓國의 動亂』, 兵學研究社, 1950, 63쪽.

하지만 현 순경은 증언당시, 서머타임을 기억하지 못했고, 조 경사는 2014년 작고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 때문에 개전 당일 경찰비상경제총사령부 또는 철도경찰본대에서 정확히 몇 시에 북한군의 전면 남침을 인지하였고, 정확히 몇 시에 전투명령이 하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特殊戰例集』에 기록된 개성역 전투의 경과시간은 앞으로 논의될 개성철도경찰대의 전과(戰果) 및 개성역 전투의 쟁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견지에서 연관 자료와 증언을 통해 정확한 시간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현 순경은 ‘북한군의 신호탄이 발사될 당시, 개성역에는 아침 첫 통근열차가 대기 중이었고, 이후 개성역을 출발했다.’는 증언을 했다.⁷¹⁾ 열차는 다중이용시설로 정확한 시간에 운행되어야 함으로 교차 대조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림 1〉 1950년 6월(기준) 개성지구 경의선 노선표⁷²⁾

71) 현호진(당시, 개성철도경찰대 통신실 순경) 증언, 전화 인터뷰, 서울, 2016. 7. 4. 5.

72) 『경향신문』 1950. 6. 27.

개전 당일 개성역 철도원들과 다음역인 봉동역 역장의 증언은 『韓國交通動亂記』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토성에서 출발한 아침 통근열차인 제202열차를 응급으로 취급하여, 포탄이 난무하는 가운데 다음 역으로 출발시켰다. 개성 시내에 포탄과 총탄이 작렬하자, 방공호와 대피소에 은신하였다. **약 1시간을 경과하지 못하고** 총성이 멈춘 사이, 방공호를 나왔을 때는 이미 괴뢰군이 사면팔방에서 함성이 일고, 괴뢰군의 군마가 시내를 질주하고 있었다.⁷³⁾

05시 30분이 지나서 토성에서 오는 제202통근열차가 왔다. 승객들은 “개성은 지금 대단합니다. 시내에는 포탄이 비오는 듯하고, 시민들은 모두 대피하고, 이 열차도 천시만고로 빠져나왔다.”고 말했다.⁷⁴⁾

이 같은 기록을 전제로 개성역에서 개전 당일, 아침 첫 통근열차의 출발시간을 추론하면 05시 10분경이다.⁷⁵⁾ 그러면 현 순경의 증언은 서머타임이 적용된 시간이었고, 신호탄이 발사될 당시, 개성역에는 아침통근열차가 대기 중이었으므로 **‘북한군의 개성시 공격신호탄의 발사시각은 05시 또는 그 이전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기준으로 『特殊戰例集』에 기록된 전투경과시간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군의 신호탄이 발사될 당시, 현 순경의 증언과 같이 개성 철도경찰대의 본부에는 당직대원 2명만이 근무 중이었다. 그러면 대원들은 05시 10분 이후, 소집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장의 작전 명령이 하달된 시각인 05시 30분은 서머타임이 적용되지 않은 한국

73) 『韓國交通動亂記』, 55쪽.; 열차운행시간 또한 서머타임이 실시되었으나, 『韓國交通動亂記』 기록은 표준시간으로 확인된다.; 「섬머타임이 오늘부터 시작」, 『동아일보』 1950. 4. 1.

74) 『韓國交通動亂記』, 56쪽.

75) 1947년(기준), 개성발-용산행(05시 30분~08시) 열차시간은 1950년까지 변동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개전 당일, 아침 첫 열차의 승객은 **‘정상운행시간보다 20분이나 일찍 출발했다.’**는 증언을 했다.; 『동아일보』, 1947. 11. 30.;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 1, 50쪽.

표준시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개성역 전투의 개전시간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06시경 시가전이 치열했다’는 기록에 이어, ‘08시경, 전투경과 30분 후’라는 기록이 눈에 띈다. 이는 전투의 개전시간이 07시 30분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기록으로는 개성역 전투의 개전시간을 명확히 할 수 없다. 따라서 개전시간을 검토해 보면, 우선 북한군의 신호탄 발사시각인 05시경은 곧 개성시 공격시간이었다. 현 순경은 북한군이, ‘신호탄 발사와 동시에 송악산 아래, 야산(본부건물과 약 2km 이상의 지점)에서부터 개성시로 달려 내려왔다.’고 증언했다. 이는 군대 행군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⁷⁶⁾ 신호탄 발사 이후, 약 20분~40분이면, 개성시로 진입할 수 있는 거리이다. 그런데 개성역 전투의 개전시간이 07시 30분이라는 것은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시간이다.⁷⁷⁾

또한 앞서 살펴본 이종림은 ‘06시,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에게 기관차를 빼앗겼다는 개성역장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으며, 국군 제12연대 제7중대 중대장과 제2, 제3소대원들은 이 같은 상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⁷⁸⁾ 다시 말해, 05시 30분경에는 대장의 작명과 같이 개성철도경찰대의 대원들이 개성역에 전투배치가 되어 있었고, 북한군은 06시 이전에 개성역을 공격했다는 것임으로 대원들과 북한군의 교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라주바예프 또한 ‘북한군은 06시 20분에 시가전에 돌입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증언과 추론을 종합하면, 『特殊戰例集』에 기록된 ‘08시경, 전투경과 30분 후’라는 기록은 기록자의 착오 또는 오기(誤記)로 판단되며, 개성역 전투의 개전시간은 시가전이 치열했다는

76) 군대행군시간(시속 4km), 급속행군시간(시속 6km) 기준.

77) 군검필(軍檢畢)을 거친, 당시 일간지들은 ‘25일 오전 5시 55분 적들은 예정대로 개성시가를 침입할 목적으로 비둘기고지와 104고지를 점령하고, 개성시가를 기습(奇 二十五일 오후까지에 전(襲)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三八魔線을 粉碎하자」, 『경향신문』 1950. 6. 27.; 「敵主力部隊 崩壞」, 『동아일보』 1950. 6. 27.

78) 『한국전쟁사』 제1권(개정판), 406쪽.

06시 이전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개성역 전투의 소요시간에 대해 살펴보면, 개성역 철도원들의 증언에서, ‘대피 이후 약 1시간을 경과하지 않았다.’는 점은 북한군에게 기관차를 탈취당한 이후, 대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성역 전투의 소요시간이 1시간을 경과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라주바예프는 ‘북한군 제6보병사단은 05시 10분부터 약 30분간 포병공격 준비사격을 실시했고, 06시 20분에 시가전에 돌입했으며, 짧지만 격렬한 전투를 벌인 끝에 07시 30분 무렵 개성을 점령했다.’⁷⁹⁾고 기술하고 있다. 즉 북한군의 전투소요시간은 1시간 10분이었고, 전투종료시간은 07시 30분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시간은 『特殊戰例集』에 기록된 개성역 전투의 종료시간인 08시 30분과 정확히 1시간의 차이가 발생된다. 또한 『韓國戰爭戰鬪史』(9)에서도 개성이 점령된 시간은 ‘08시 전, 후’로 기록하고 있다.⁸⁰⁾ 이러한 점에서 『特殊戰例集』에 기록된 전투종료시간인 08시 30분은 서머타임이 적용된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추론된 결과로 개성역 전투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북한군의 개성시 공격 신호탄이 발사된 시각은 05시 이전이다. ② 대장의 작명이 하달된 시간은 05시 30분이다. ③ 전투의 개전시간은 06시 이전이다. ④ 통신이 두절되고, 대원들이 북한군에게 포위된 시간은 06시 30분이다. ⑤ 전투종료시간은 07시 30분이며, 전투소요시간은 약 1시간 20분~30분이 경과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⁸¹⁾

79) 『라주바예프의 전쟁보고서』(1), 147. 295쪽.; ‘북한군 제4포병연대 1대대는 개전 당일 00시를 기해, 04시 30분부터 제13, 제18보병연대 지원사격으로 공격개시 명령이 내려졌고, 04시 40분~05시경 포병돌격 준비사격을 20분간 실시했다.’ 따라서 당시 북한군 제6보병사단 또한 04시 40분~05시경에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북한군 병사수첩』, 2001, 9쪽.

80) 『韓國戰爭戰鬪史』 9, 157쪽.

81) 북한군이 개성주둔 국군 제12연대 3개 중대 경계진지를 기습공격한 시간은 03~04시경으로 추정된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史研究』 第二輯, 1966,

그렇다면 『特殊戰例集』에 기록된 작전경과시간은 서머타임이 적용된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됨으로 개성역 전투의 경과시간에 대한 기록은 재고(再考)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북한군의 철도편승설

살펴본 바와 같이 개성역 전투에 대해서는 1951년부터 『特殊戰例集』에 개성역을 침공한 북한군의 공격방향 및 전투요도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개성역 전투 이후, 개성함락과 관련하여 경찰전사(戰史)와 일부 관련 자료 등에서는 ‘경의선 철도에 편승한 북한군이 여현쪽에서 개성역으로 돌입함으로써 얻게 된 기습효과로 개성시가 점령되었다.’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⁸²⁾ 하지만 1977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한국전쟁사』 제1권(개정판)에서는 개성주둔 제12연대 제1중대 1개 소대의 증언과 개성함락시간을 근거로 ‘북한군의 철도편승설’은 일설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축한 바가 있다.⁸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술되어 있는 자료들은 정정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이러한 일설을 인용한 기고문 등이 발견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개성역을 공격한 북한군 제6보병사단의 사단장의 전술로 와전되어지고 있는 반면, 개성역을 사수하기 위해 전투를 감행한 개성철도경찰대의 용기와 희생은 퇴색시키는 결과를

81쪽.; 당시 국군 제12연대를 공격한 북한군 제6보병사단 제13연대 소속 최태환은 “38선을 넘었을 때는 이미 침병부대의 소조(小組)에 의하여 국군 진방 초소가 기습을 받아 무참하게 유린당한 이후였다.”고 증언했다.; 라종일,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 예진출판사, 1991, 191쪽.

82) 『韓國警察史』Ⅱ, 249쪽.; 『韓國警察戰史』, 71쪽.; 尹長鎬, 『護國警察戰史』, 第一, 1996, 93쪽.; 대한민국참전경찰유공자회, 『아~살아있다! 대한민국경찰의 흔』, 2003, 370쪽.;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研究』第二輯, 1966, 80~81쪽.; 陸軍士官學校 戰史學科, 『韓國戰爭史』(增補版), 1994, 226쪽.; 兒島襄 著, 김민성 역, 한국전쟁(상), 종로서적, 1981, 33~34쪽.; 佐佐木春隆 著, 강창구 역, 『韓國戰爭秘史-기나긴 四日間』(中卷), 1983, 233~237쪽 등

83) 『한국전쟁사』 제1권(개정판), 457쪽.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일설의 원 출처는 당시 개성주둔 육군 제12연대의 미 고문관이었던 다리고 대위의 ‘개성역에서 북한군이 열차에서 하차하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 고문관 1명의 증언에 불과한 ‘북한군의 철도편승설’이 기록된 원인은, 초기 전사기록 당시 철도경찰대는 해체된 시점이었고,⁸⁴⁾ 6.25전쟁에 관한 경찰자료의 소실과 경찰자료의 비접근성, 국내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미군과 미 군사고문단의 자료를 검증하지 않고, 인용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앞서 이 연구를 통해 발굴된 자료와 증언을 통해 추론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리고 대위의 증언에 대한 진위여부와 ‘북한군의 경의선 철도편승설’을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군의 경의선 철도편승설’의 핵심은 ‘북한군이 열차를 타고 개성역으로 돌입함으로써 얻게 된 기습효과로 개성시가 점령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추론된 내용을 재정리하면, 개성역에서 아침 첫 열차가 출발한 05시 10분경까지 개성역으로는 북한군의 침공이 없었고, 06시경 개성 시내에서 탱크를 앞세우고 침공한 북한군은 열차의 기관차를 탈취했다. 그러면 만일 그 시간에 열차를 타고 북한군이 개성역에 돌입했다면, 출발대기중인 통근열차의 기관차를 탈취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개성점령시간은 라주바예프의 기록과 같이, 개성역 전투의 종료시간인 07시 30분으로 추론되었다. 그런데 06시 이전부터 07시 30분까지 전개된 개성역 전투의 전투요도에는 개성역 방향에서 시작된 북한군의 공격방향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개성점령시간인 07시 30분까지 개성역으로 돌입한 북한군의 기습공격은 없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덧붙여 당시 북한군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은 북한군의 개성시 침공방향은 모두 송악산 방향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국군 제12연대 제7중대의 중대장이 목격한 북한군

84) 국립경찰 철도경찰대는 6.25전쟁 정전 80일 만인 1953년 10월 15일 해체되었다.: 「大統領令」 第823號(1953. 9. 26.) 《官報》 第977號(1953. 9. 26.)

들도 ‘송악산 능선 양쪽 도로와 1번 국도를 따라 남하했다.’⁸⁵⁾ 한편 북한군 제6보병사단 제13연대 정치보위부 장교이었던 최태환은 “05시 45분 송악산 주봉(488고지) 동쪽 능선에 위치한 북한군 제6보병사단 제13연대의 병커에서 뛰쳐나와 남쪽을 향하여 밀고 내려왔다.”⁸⁶⁾는 증언을 했다.

이와 연계하여 개전 당일, 개성을 침공한 북한군 제6보병사단의 전투명령과 북한군 제6보병사단의 2개 연대의 전투명령과 부여된 전술 지역 및 진격방향은 개성을 점령한 후, 강리(개성 서남방 12km)와 토성(개성 서쪽 9km, 개풍) 등으로 진격하는 남침작전이었으며, 기록에 의하면 08시 30분경에는 토성방면인 대국동(개성 서방 3km)선까지 진출했다.⁸⁷⁾ 이 같은 사실은 개성역 전투의 전투요도에서도 북한군들은 개성역에 집결하여, 토성방면으로 이동했다는 것이 표시되어 있으며, 『韓國交通動亂記』의 ‘토성역 철도원이 기관차를 운전해서 개성역 근방에 도착했을 때, 개성시내는 이미 북한군이 점령하여 되돌아갔으며, 토성은 개성 정면에서 장단, 고랑포 방면에서 남하한 적들로부터 점령되었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⁸⁸⁾

둘째, 북한군이 열차를 타고 개성역으로 침입하려면, 북한 지역의 여현역에서 남한지역인 토성역까지의 구간거리인 약 7.8km의 철로를 연결했어야 했다. 하지만 6월 24일부터 개전 당일인 6월 25일 08시까지 국군 제1보병사단 제12연대의 제2대대 제5중대의 1개 소대가 여현 남쪽 1km 지점인 103고지(토성역 북쪽 700m 지점)에 배치되어 있었다.⁸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대원들을 포함하여 동 지역의 주민들과 철도원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야간을 틈타 조명과 소음 없이 철로

85) 『한국전쟁사』 제1권(개정판), 404쪽.

86)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 191쪽.

8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북한군 전투명령』, 2001, 84~87쪽.; 『라주바에프의 6.25전쟁보고서』 (1), 146~147쪽.

88) 『韓國交通動亂記』, 53쪽. 57쪽.

89) 『한국전쟁사』 제1권(개정판), 409~410쪽.

를 연결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셋째, 다리고 대위가 증언한 내용의 핵심은 ‘개성역에서 열차에서 하차하는 북한군을 목격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확하게 목격한 시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그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군을 목격했다.’는 시간을 추론해 보면, 05시 30분~05시 50분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⁹⁰⁾ 그런데 이 같은 시간은 앞서 살펴본 개성역장의 증언에서, ‘06시경 북한군에게 기관차를 빼앗긴’ 시간과 일치한다. 따라서 다리고 대위가 목격한 북한군은 국군 제12연대 중대원들의 증언과 같이 개성역에서 기관차를 탈취하려는 북한군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개성역 방향에서 총탄이 날라 왔다는 것은 추론된 바와 같이 개성역 전투가 시작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결정적인 부분으로 ‘북한군이 열차를 타고 개성역에 하차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증인은 현재까지 다리고 대위 1명밖에 없는 사실이다. 특히 개성역 전투의 생존자와 개전당일 개성지구의 각 철도역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韓國交通動亂記』에서도 이러한 증언과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더구나 당시 개성을 탈출하기 위해 개성역에 밀집해 있었던 개성시민들의 증언조차 찾아 볼 수 없다.

이외 다리고 대위의 증언에서는 모순된 정황증거들도 발견된다. 이를테면, 당일 날씨는 가랑비와 안개로 시계가 불량하였고, 일출시간은 05시 45분이었다.⁹¹⁾ 그런데 달리는 차량에서 바라본 시야로 약 0.5마일(1.6km)의 거리에 위치한 개성역에서 ‘열차에서 하차하는 북한군을 목격하였다.’는 점과 ‘15여량의 열차 칸을 확인했다.’는 점, 더욱이 북한군의 군복 색상을 ‘겨자색을 띤 갈색(mustard-colored brown)’으로 식별하였다는 점 등이다.⁹²⁾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90) 『한국전쟁사』 제2집, 184쪽.; 당시, 다리고 대위의 숙소인 송악산 바로 아래 위치한 성군관(개성 북동쪽, 개성시 부산동)에서 개성남쪽 문산 방향의 교차로 근처, 즉, 북한군을 목격한 지점까지의 예상소요시간이다. 1950년 미 군용지프(윌리스 M38A1 최고시속 80km 기준).

91) 『韓國戰爭史研究』 第二輯, 79쪽.; 『韓國戰爭戰鬪史』 9, 146쪽.

같이, 당시 개성시와 개성역을 기습한 북한군 선봉대는 대부분 국군 군복으로 위장한 상태였다.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미 육군 군사연구실에서 편찬한 주한미군사고문단에 관한 기록에서도 다리고 대위의 ‘개성역에서 열차에서 하차하는 북한군을 목격했다.’는 증언은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⁹²⁾ 이처럼 국군 제12연대의 군사고문관으로서 가장 먼저 개성을 탈출한 그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과 그 진위여부는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개전 당일 북한군의 개성시 공격신호탄이 발사된 05시경부터 개성점령시간인 07시 30분경까지, 다리고 대위 1명의 증언 이외에는 북한군의 열차편승에 대한 기록과 증언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북한군의 경의선 철도 편승설’은 개성함락과는 무관하며, 성립되지 않는 허구(虛構)에 불과하다.

라. 전투결과

1) 전과(戰果)

경찰전투교본인 『特殊戰例集』(1951년)은 6.25전쟁 개전 이후, 경찰전투 중 특수하게 이례적인(特殊異例) 각 전투의 작전경과를 소개하고, 전과 및 전훈, 교훈 등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개성역 전투에 관해서만은 전과 및 전훈, 교훈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때문에

92)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Yalu*(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86), p.23.; T. R. Fehrenbach, *This Kind of War*(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83), pp.54~55.: 미 육군 군사감실에서 한국전사(戰史)편찬을 목적으로 창설된 군사지대가 자료생산과 수집을 위해 한국에 도착한 시기는 1951년 2월~7월 중이다. 또한 당시 군사지대의 활동을 살펴보면, 목격자가 1명뿐인 다리고 대위의 증언에 대한 진위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용욱, 「전선의 역사가들 - 6.25전쟁 기 미 육군군사지대의 한국전사 편찬활동」, 『군사』 제89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236~263쪽 참고.

93)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C in Peace and War*(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85), p.115.

개성역 전투를 기술하고 있는 『民族의 先鋒』(1952년)은 “當日戰果, 敵射殺多數”, 『韓國 警察史 II』(1972년)는 “전과를 헤아릴 길이 없었다.”, 『韓國警察戰史』(1982년)에서는 “그들(북한군)의 희생도 엄청났던 것이다.”고 기술하고 있다.⁹⁴⁾ 이와 같은 기록은, 개성역 전투는 6.25전쟁 발발 당일 벌어진 경찰 최초의 전투이었고, 전투종료이후, 개성지구는 북한군의 점령 지역이었으며, 탈출한 3명의 대원들 또한 정확한 전과산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연관된 기록과 증언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성을 침공한 북한군 제6보병사단 제13, 제15연대의 전투경과에 대한 라주바예프의 기록을 살펴보면, “06시 20분에는 제15 및 13보병연대의 예하부대들이 개성에서 시가전에 돌입하였으며, **짧지만 격렬한 전투를 벌인 끝에** 07시 30분 무렵에 적을 개성에서 완전히 소탕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전투대상에 대해서는 “붕괴된 적 제1보병사단 제12연대 예하부대들은 남쪽과 동남쪽 방면으로 퇴각하기 시작하였다.”⁹⁵⁾고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 북한군을 목격한 최응표(당시, 개성송도중학교 학생)는 이와 전혀 다른 주장을 했다. 최응표의 증언에 의하면, 개전 당일 “인민군이 개성시내에 진입하면서, **철도경찰과 약간의 전투를 벌인 것 외에는 별다른 저항 없이 인민군은 개성을 점령했고,** 날이 밝으면서 학생들은 모두 등교하라는 학교 측의 지시가 시내에 전달됐다. …… 인민군 군복을 입은 고급장교는 자신을 연대장이라고 소개하며, ‘나는 팔로군(八路軍)입니다. …… 우리가 개성시내에 들어올 때까지, 한 명의 희생자도 없었는데, 개성시내에 들어와서 병사들이 개죽음을 했습니다.’라며 울분을 토했다.”는 것이다.

94) 內務部 治安局 大韓警察戰史發刊會, 『民族의 先鋒』大韓警察戰史 第1輯, 興國研文協會, 1952, 115쪽.; 『韓國警察史』II, 250쪽.; 劉官鍾, 『韓國警察戰史』, 第一加除法令出版社, 1982, 71~73쪽.

95)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1), 147쪽.

즉 라주바예프는 개전 당일, 개성시가전에서 북한군의 전투대상은 ‘국군 제12연대의 예하부대들’이라고 기술했지만, 최응표는 ‘개성철도 경찰대’라고 증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록과 증언의 신빙성 측면에서, 라주바예프의 기록은 ‘6.25전쟁 관련 자료를 수집, 평가하여 소련 상부기관에 보고한 문서’이고,⁹⁶⁾ 최응표의 증언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상황을 증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응표의 증언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는 개전 당일 ‘전선에서 들어오는 무전내용을 번역해서, 개전 상황을 참관 중인 소련 장교들에게 전달했다.’는 당시 북한군 제2군단 공병참모 주영복(러시아어 통역장교)의 증언이다. 당시 주영복이 번역한 북한군의 무전내용을 살펴보면, “제6사단은 개성에서 국군 1개 연대를 전멸하고, 개성을 해방했다.”⁹⁷⁾는 다소 과장된 보고가 발견되지만, 라주바예프는 일부 이러한 북한군의 전과 보고에 의한 기록들을 수집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개성에는 아군의 포병지원이 없었음에도 라주바예프는 ‘(개성) 서북쪽, 서쪽 및 동쪽으로부터 도시로 진입하는 지역들은 강력한 포병과 박격포 화력으로 강화되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⁹⁸⁾ 이러한 북한군의 보고내용으로 볼 때, 군의 사기진작 등의 이유로 비정규군인 철도경찰대와의 전투를 은폐하였을 가능성과 라주바예프가 철도경찰대를 국군 제12연대의 예하부대로 착각, 또는 의도적인 표현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개성주둔 육군 제12연대 제2대대의 3개 중대의 개전 당일, 전투상황 및 조치에 대한 기록을 종합하면, 라주바예프가 기록하고 있는 06시 20분에서 07시 30분경까지 개성시가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⁹⁹⁾

96)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48쪽.

97)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 64~66쪽.

98)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95쪽.

99) 『한국전쟁사』 제1권(개정판), 404~405쪽, 409쪽.; 『전진역사』, 1966년, 48~50쪽.; 『戰略戰術其他研究를 爲한 資料集』, 56쪽.; 『韓國戰爭戰鬪史』 9, 156~161쪽.; 『韓

따라서 살펴본 자료와 증언만으로 개성철도경찰대의 전과를 단정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라주바예프가 기술하고 있는 북한군의 전투대상은 최응표의 증언과 같이 개성철도경찰대의 대원들로 추정되며, 피아간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라주바예프의 ‘짧지만 격렬한 전투를 벌인 끝에’라는 기술내용과 최응표의 증언으로 미루어, 개성철도경찰대의 전투결과로 북한군의 물적, 인적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이외 현재까지 개성철도경찰대의 전과를 추론할 수 있는 증언 및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논의를 전제로 북한군이 개성을 점령하기까지 마지막 전투는 개성역 전투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개성철도경찰대는 개성이 점령되는 순간까지, 방어전을 펼친 마지막 병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앞서 추론된 개성역 전투의 개전시간은 개전 당일 벌어진 경찰 최초의 전투라는 것을 재확인한 것임으로 개성역 전투는 국립경찰 최초의 전투이었으며, 개성이 점령되기까지 마지막 전투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역사적 의미는 재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인명피해 및 전사자 명단

『特殊戰例集』에는 개성역 전투의 결과에 대해, ‘소집인원 50명 중 3명만이 탈출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대장 감봉룡 경감을 제외한 전사자 명단은 기록되어있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개성역 전투를 기록하고 있는 『民族의 先鋒』 등의 자료에서는 전사 43명, 부상자 8명, 탈출 3명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이들 자료들에서도 대장 감봉룡 경감을 제외한 전사자 명단은 찾아볼 수 없다.¹⁰⁰⁾ 때문에 2016년

『國戰爭戰鬪史』 9, 160쪽의 기록에서 제7중대의 중대장이 남하하는 북한군을 목격한 시간에 대해 “손목시계가 0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기록은 당시 서머타임을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실제시간은 06시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100) 『民族의 先鋒』 이 발간된 1952년 당시 철도경찰대의 전사자 명부에 기록된 전사자는 43명이었다. 하지만 8명의 부상자에 대한 기록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개성역 전투의 전사자 명단은 일반에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철도경찰대는 내무부 직속 치안국 소속의 국립경찰조직으로 국가행정조직이었다. 따라서 조직이 해체된 이후에는 소관 관청인 경찰청에서 관리되며, 관련 문서는 정부보존문서로써 법규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보존하게 되어있다. 이 같은 근거로 관련 문서를 추적한 결과, 철도경찰대의 생산문서는 모두 소실되었다는 증언과 달리,¹⁰¹⁾ 철도경찰대의 인명관련 문서는 2014년 현재, 경찰청과 국가기록원에서 관리, 보존되고 있었다.

이렇듯 철도경찰대의 인명관련 문서가 보존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성역 전투의 전사자 명단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조직의 해체로 인한 관심부족과 관련법규 및 문서에 대한 접근성의 제한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문 수기(手記)로 작성된 문서들은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간체자, 일본식 한자 및 표현 등이 혼재되어 있었고, 문서의 양이 많아 현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문서들은 철도경찰본대에서 관리되었던 문서들이었으며, 문서의 종류는 본대를 포함한 1교(敎), 13개 대(隊), 2개 대대(大隊)의 직원명부 및 인명관련 문서들과 전사자 명부이다.

각 직원명부¹⁰²⁾의 작성 시기는 1949년 7월 31일부터 해체일인 1953년 10월 15일까지이며, 약 4년간의 직원명단이 기록되어 있었다. 명부를 통해 확인되는 사항은 임명, 전입, 전출, 면직(免職) 연월일과 전입 및 전출지이다. 면직사유는 전사, 순직, 사망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되어 있으며, 1949년 8월 1일 이후, 임명 및 면직된 대원은 본대에서 관리되었던 임명, 면직명부 등의 문서와 교차검증이 가능했다.

101) 대한민국 여경 재향경우회, 『韓國女子京察六十年史』, 도서출판 에스프리, 2007, 102쪽.

102) 내무부, 『직원명부 1949. 7 작성 치안본부 철경(청량리. 개성)』, 1949, 국가기록원 소장문서(CA0300190)

전사자 명부¹⁰³⁾는 1948년 10월 1일부터 1953년 7월 20일까지의 순직, 전사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후 1988년부터 유가족들의 신청에 의해 추가된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전사자 명부를 통해 확인되는 사항은 순직 및 전사자의 소속과 순직, 전사 연월일, 순직사유 등이다.

개성역 전투의 전사자 명단을 찾기 위해, 개성철도경찰대의 직원명부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6.25전쟁발발 당일인 1950년 6월 25일부터 1950년 9월 5일까지(67일 간) 개성철도경찰대 소속으로 실종된 대원들은 총원(220명)의 36%인 80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7명, 순경 70명)이었다.¹⁰⁴⁾ 이들은 모두 동년 9월 5일자로 면직 처리 되었으나, 그 중 35명의 대원들은 정정표기와 전출지역 등이 기재되어 있어 생존하여 원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45명의 실종대원들은 동일하게 1계급씩 추서(追叙)되어 ‘1950년 6월 25일, 전사(戰死)’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직원명부의 기록에 따르면, 개성철도경찰대는 실종된 대원 중 전사자 이외에는 당시 모두 복귀했다는 것이다. 즉 개성역 전투에 참전한 50명의 대원 중 전사자는 총 45명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特殊戰例集』의 기록과 증언으로 당시 탈출한 대원은 3명이었다면, 남은 2명에 대해서는 개성철도경찰대의 직원명부의 기록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록 및 증언과는 달리, 당시 5명의 대원이 탈출했을 가능성과 소속이 다른 철도경찰대원이었을 가능성도 있다.¹⁰⁵⁾

103) 內務部 治安局, 『鐵道警察本隊殉職警察官臺帳』, (1949~), 경찰청 소장, 관리문서.

104) 당시 내무부 치안국에서 집계한 경찰 인명피해 현황(1차 통계, 1950. 6. 25~1950. 9. 30.)에서 철도경찰대는 실종 532명, 전사 19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개성역 전투의 전사자들을 포함하여, 전사자 명부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 2차 통계(1950. 10. 1~1951. 4. 15) 또한 전사자 명부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며, 이러한 통계는 현재까지 정정되지 않고, 인용되고 있다.; 『韓國警察史』, 309쪽. 332쪽.(참고)

105) 개성역 전투에서 생존한 대원 3명의 명단은 대장의 작명에 기록된 홍리화 경위 이외에 직원명부의 기록으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직원명부에서 확인된 45명의 전사자 명단을 철도경찰대의 전사자 명부와 교차, 검증한 결과, 황종록 경사, 이태중 순경, 한태수 순경 등 3명의 명단이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다.¹⁰⁶⁾ 직원명부에 기록된 전사자 명단이 전사자 명부에 누락된 이유는, 본대에서 관리되었던 철도경찰대의 전사자 명부는 각 지방철도경찰대의 직원명부에 기록된 순직, 전사자 명단을 필경사(筆耕士)로 추정되는 기록자가 일괄적으로 사록(寫錄)한 문서로 추정된다. 하지만 1953년경, 전사연월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재 사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1959년경, 철도경찰 201대대, 202대대의 전사자 명부와 합본한 문서이다. 때문에 이러한 문서의 사록과정에서 이들의 명단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며, 전사자 명단 또한 철도경찰본대의 1950년도 이동(異動), 임명(任命) 사령원부(司令原簿)¹⁰⁷⁾ 및 직원명부에 기록된 한자표기와 상이한 오기(誤記) 등이 발견된다.

전사자 명부에는 누락된 3명의 대원을 제외한 전사자 42명의 대원에 대한 순직상황과 유훈(遺勳)은 아래와 같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本名은 四二八三年 六月 二十五日 七時頃, 三八前線인 開成地區에서 傀儡軍南侵에 際하여, 開成地區 防禦戰에서 最後까지 奮戰, 壯熱한 戰死를 함.”

이상, 개성철도경찰대의 직원명부와 전사자 명부를 교차 검증으로 확인된 개성역 전투의 전사자는 총 45명(경감 1명, 경위 1명, 경사 4명, 순경 39명)이었으며, 그 명단은 <표 4>와 같다.

106) 직원명부와 전사자 명부의 교차 검증은 직원명부의 기록에서 1950년 6월 25일 기준, 개성철도경찰대의 대원으로 확인되지 않는 명단은 대조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이 연구에서는 제외했다.

107) 『1950년도 사령원부 철도경찰본대』, 내무부, 1950, 국가기록원 소장문서(CA03 00211)

(표 4) 개성철도경찰대의 개성역 전투(1950년 6월 25일) 전사자 명단¹⁰⁸⁾

연번	사망 계급	추서 계급	성명		임명, 전입일	사망 구분	사망일자	사망 장소	사망개요
			한글	한자					
1	경감	총경	김봉룡	甘鳳龍	1947.12.16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2	경위	경감	박준호	朴俊鎬	1949. 7.15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3	경사	경위	김안관	金安權	1946. 8.16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4	경사	경위	이균항	李均恒	1946. 8.23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5	경사	경위	최운학	崔雲鶴	1949. 9. 9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6	경사	경위	황종록	黃鍾錄	1949. 4. 9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7	순경	경사	김경상	金景祥	1950. 3.27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8	순경	경사	김봉서	金鳳瑞	1948. 12. 1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9	순경	경사	김응대	金應大	1950. 3.27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10	순경	경사	김익환	金益煥	1946. 12.15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11	순경	경사	김진웅	金鎭雄	1949. 10. 8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12	순경	경사	김창근	金昌坤	1949. 5. 5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13	순경	경사	라덕운	羅德允	1950. 1. 10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14	순경	경사	박병선	朴炳旋	1948. 12.21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15	순경	경사	박영부	朴永富	1949. 5. 5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16	순경	경사	박희춘	朴熙椿	1949. 5. 5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17	순경	경사	백효원	白孝源	1949. 9. 9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18	순경	경사	소상민	邵商敏	1946. 11.25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19	순경	경사	손득문	孫得文	1948. 7. 14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20	순경	경사	신석범	申錫範	1948. 11.30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21	순경	경사	윤중학	尹鍾學	1948. 5. 25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22	순경	경사	이동섭	李東燮	1949. 8. 6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23	순경	경사	이범구	李範九	1950. 3. 27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24	순경	경사	이성근	李成根	1949. 8. 6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25	순경	경사	이영식	李永植	1949. 10. 1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26	순경	경사	이장호	李章鎬	1950. 1. 12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108) 『직원명부 1949. 7 작성 치안본부 철경(청량리. 개성)』, 『鐵道警察本隊 殉職警察官臺帳』 분석 및 통계.(2015. 3. 30. 기준); 상기 전사자 명단 중 전사 연월일인 1950년 6월 25일 이후, 철도경찰대의 전체 사령원부 및 직원명부(1950. 6. 25 ~ 1953. 10. 15)를 통해 확인되는 동명인(한자)은 이성근(李成根), 이재성(李在成), 한태수(韓泰洙)이다. 그러나 명부들의 기록으로는 이들이 동일인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27	순경	경사	이재성	李在成	1949. 9. 9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28	순경	경사	이정로	李貞魯	1949. 9. 9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29	순경	경사	이종은	李鍾殷	1949. 5. 5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30	순경	경사	이태종	李台宗	1950. 5. 27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31	순경	경사	임성춘	林成春	1950. 5. 27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32	순경	경사	임운규	林芸圭	1946. 12.14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33	순경	경사	장기대	張基大	1949. 9. 9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34	순경	경사	전동연	全東燕	1949. 10. 8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35	순경	경사	전이광	全利光	1950. 5. 27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36	순경	경사	정원용	鄭元用	1948. 12.30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37	순경	경사	조계준	趙季濬	1948. 12.21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38	순경	경사	조응만	趙應萬	1949. 2. 15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39	순경	경사	주성남	朱成南	1946. 8. 6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40	순경	경사	최배일	崔培鎰	1950. 2. 13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41	순경	경사	최영기	崔永基	1949. 9. 9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42	순경	경사	하호용	河豪龍	1949. 9. 9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43	순경	경사	한태섭	韓泰燮	1948. 10.10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44	순경	경사	한태수	韓泰洙	1949. 8. 31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45	순경	경사	홍태목	洪台穆	1949. 5. 5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한편 앞서 개성철도경찰대의 직원명부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2명의 대원과 관련하여, 철도경찰대의 전사자 명부를 살펴보면, 개전 당일 개성지구에서 전사한 대원 2명의 기록이 주목된다. 이들은 당시 2인 1조로 편성되어 운용된 철도경찰대의 열차 이동승무대원으로서 경의선 용산역-청단역 구간을 담당한 용산철도경찰대¹⁰⁹⁾ 소속의 서당석(徐塘錫: 당시, 만 27세) 순경과 고흥복(高亨福: 당시, 만 23세) 순경이었다. 명부에는 ‘1950년 6월 25일 京義線 龍山發-土城行 列車 移動乘務 中, 開城地區에서 傀儡軍 南侵으로 因하여……戰死를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109) 「鐵道移動乘務改編」, 『漢城日報』 1948. 10. 20, 국립중앙도서관DB.

그런데 기록과는 달리, 개전 당일은 북한군의 침공에 대한 개성지구의 각 역장들의 조치로 개성으로 향하는 모든 북행열차는 문산역에서 중착시켰기 때문에 경의선 용산발-토성행(05시 20~08시 35분) 열차는 개성지구로 운행되지 않았다.¹¹⁰⁾ 더구나 서당석 순경은 당시 북한군의 포로가 되어 생존한 것이 확인된다. 연관하여 개성 주둔 육군 제1보병사단 제12연대 제2대대 제6중대 오정혁(2등 중사)과 야전공병대 2중대 1소대 박춘건(2등 중사)도 당시 북한군의 포로가 되어 생존한 것이 확인된다.¹¹¹⁾

이러한 점에서 두 대원의 당시 행적을 추적해보면, 이들은 개전 전 날인 1950년 6월 24일 경의선 용산발-토성행 마지막 열차의 이동승 무대원으로 1박 2일의 근무규정에 따라, 청단역 및 토성역 등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열차로 복귀하는 일정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개성지구를 총괄하는 개성철도경찰대에는 <요도 1>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개성역에 별도의 당직실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이들이 개전 당일 개성역 당직실에 있었을 가능성을 전제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성역 전투에 참전한 50명의 대원 중 개성철도경찰대의 직원명부에서 확인되지 않는 남은 2명의 대원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렇다면 생존한 서 순경과 같이, 만일 개성역 전투에서 생존한 대원들이 있었다면, 그들 또한 북한군의 포로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10) 『韓國交通動亂記』, 54쪽.; 용산철도경찰대에서 이들을 전사로 처리한 근거는 당시 열차이동 승무대원은 피한들의 열차습격에 대비하여, 무장한 상태였고, 개전 당일 북한군과의 교전에서 생존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김정웅 (철도경찰학교 31기), 전화인터뷰, 서울, 2015. 9. 21.

111) 「포로병들이 말하는 침입한 국방군의 와해상」, 『로동신문』 1950. 7. 4, 7. 5.(조성훈, 『6.25전쟁과 국군포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52쪽과 102쪽에서 재인용)

4. 맺음말

6.25전쟁 개전 당일, 개성철도경찰대가 감행한 개성역 전투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의선 노선인 개성역은 군사적 요충지로 수도 서울 방어에 첫 번째 관문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개성시를 침공한 북한군이 개성역 후면을 향해 신호탄을 발사했다는 것은 개성역 확보를 목표로 공격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가전에 앞서, 탱크를 앞세운 선두부대로 하여금 철로를 통제하고, 기관차 통행을 차단시킨 점¹¹²⁾ 등은 북한군 또한 최우선으로 개성역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철도에 대한 피아간의 이면에는, 전투의 제1목표는 적의 무력 즉 전투능력을 박탈 또는 소모시키는 것으로 제1공격은 군대의 병력이나 병기, 전투력의 집산처를 공격, 차단하는 것임으로 대량수송수단인 철도는 주 공격목표가 되기 때문이다.¹¹³⁾

반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당시 유일한 교통수단이었고, 대량 운송수단인 철도는 병력 전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¹¹⁴⁾ 철도를 전략적 수송수단으로써 무기화하는 것이다. 실제로 개전 당일, 개성을 침공한 서부전선의 북한군 제1군단 제6보병사단은 주 공격로를 철도로 삼고, 황해 응진지구와 연안을 석권하기 위해 개성의 연계지를 차단하여 토해선을 점령했고, 개성역을 점령하면서, 봉동-문산 등 수도 서울과 연결된 경의선을 따라 침공했다. 하지만 중. 동부전선의 북한군 제2군단 제2보병사단은 춘천지구의 보급을 차단하고, 병력을 고립시키기 위해 경춘선을 제압하려 했으나,¹¹⁵⁾ 실패했다. 이는 춘천에 배치된 국군 제6보병사단 제7연대가

1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2권), 2005, 183쪽.

113) 『韓國交通動亂記』, 45쪽.

114) 마르틴 반 크레펠트(Martin van Creved), 『보급전의 역사』, 플래닛 미디어, 2010. 185쪽.

115) 『韓國交通動亂記』, 46쪽.

09시를 기하여, 춘천시에 계엄령을 선포함과 동시에 철도 및 통신시설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철도를 최우선으로 사수한 국군 제6보병사단 제7연대는 춘천역 구내와 철도시설을 군의 진지로 구축하여, 방어 및 지연전을 전개할 수 있었고, 임시군용열차로 26일까지 응원병력과 탄약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¹¹⁶⁾ 이처럼 전시 하에서는 철도가 갖는 군사적 중요성으로 인해, 철도시설의 확보 여부에 따라, 작전 및 전투의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당시, 군사적 측면에서도 지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이었던 개성역을 간과했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¹¹⁷⁾ 하지만 개성 철도경찰대는 투철한 경계의식으로 본연의 직무인 개성역을 사수하기 위해, 빈약한 무기와 소수의 병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화력의 북한군과 방어전을 감행했다는 것은 전쟁사적 의의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기록과 같이 개성역 전투가 벌어지던 당시, 제12연대의 중대원들이 개성시에서 철수하였고, 다리고 대위는 문산에서 임진강까지 탈출했다. 이처럼 개성역 전투의 경과시간인 약 1시간 이상의 시간은 아군에게 확보된 시간이었다. 따라서 개전 당일, 북한군의 진격속도를 감안했을 때, 대원들은 북한군의 남침속도를 지연시키는 성과로 국군 제12연대의 병력이 임진강으로 집결하는데 기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¹¹⁸⁾

116)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戰鬥史』 3, 1982, 20~22. 26~28쪽.; 『韓國交通動亂記』, 52쪽.

117) 개전 당시, 북한군이 개성, 고랑포 방면에 배치된 국군 제1사단의 방어정면에 주력부대와 비견할 만한 병력을 투입한 것은 이곳의 지형이 비교적 평탄하고, 기갑부대의 접근이 용이한 근거리 축선으로써, 서울의 서측방을 쉽게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군 제1사단은 '서울과 평양을 잇는 1번 국도에 대전차 장애물 또는 진지조차 구축되어 있지 않았고, 병력배치도 되어 있지 않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2권), 20 05, 108쪽.; 佐佐木春隆, 『韓國戰爭秘史-기나긴四日間』 (中卷), 1983, 231쪽.

118) 개전 당일 문산역장은 '14시경 장단역 1km 앞에 북한군이 나타났고, 불과 20분 만인 14시 20분경 폐색전화로 북한군은 장단역에서 임진강을 건너갈 것이라고 말했다.'는 증언을 했다. 개성역과 장단역까지의 노선거리는 약 21.2km이다.; 『韓

더구나 개성역을 침공한 북한군 제6보병사단(제15연대)은 북한 정규군의 주력으로서, 팔로군 출신의 최정예 부대이었다. 그러나 막강한 병력과 화력에도, 비정규군인 개성철도경찰대의 불과 50명의 대원에 대하여, 기갑부대의 지원과 약 1시간을 경과한 고전(苦戰) 끝에, 개성역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점은 대원들의 강한 정신력과 전투력을 입증한 것이다. 따라서 예상하지 못한 대원들의 저지로 병력 및 화력의 일부를 개성역에 집중시킨 북한군은 작전의 차질과 진격속도 등이 지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대원들의 전투상황에 대해서 개성역 전투의 생존자인 홍리화(당시, 개성철도경찰대 경비주임) 경위는 다음과 같이 술회한 바 있다.

“철도경찰대 본부를 사방에서 포위한 북한군은 전차포로 청사를 파괴하는 동시에, 자동 화력을 집중했다. 그러나 전 대원은 죽음을 각오하고 적과 싸웠다. 끝내는 병력과 화력의 부족 때문에 적세를 감당하지 못하여 대장 감봉룡 경감 이하 전원이 옥쇄하고, 나를 포함하여 3명만이 적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생존하고 있어 그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된다.”¹¹⁹⁾

결론으로 정리하면, 당시 개성역은 38경계선 최북단에 위치하여, 6.25전쟁 발발 이후, 가장 먼저 북한군의 공격을 받았으며, 개성역 전투는 전면전이라는 인식을 하기도 전에 벌어진 국립경찰 최초의 전투이었고, 개성이 함락되기까지 마지막 전투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45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개성역 전투는 개전 초기, 경찰전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치열한 전투이었다. 비록 그들이 결의한 개성역 사수는 실패했지만, 후퇴하지 않고, 최후의 순간까지 북한군을 향해 전진 공격함으로써, 국립경찰의 명예와 호국의 의지, 희생정신을 고취시킨 점은 마땅히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國交通動亂記, 58~59쪽.

119)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 1, 759쪽.

이 연구는 이러한 개성역 전투에 대한 기록과 증언들을 발굴하고, 전투의 전개과정을 고찰하여, 역사적 의의로의 재조명을 시도했고, 전사자 명단을 발굴하여 전투 이후, 66년 만에 그 명단을 밝혀냈다. 또한 연구의 결과로 ‘북한군의 경의선 철도 편승설’은 허구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6.25전쟁 당일 북한군의 개성공격시간과 개성함락시간, 개성역 전투의 경과시간 등을 검토하여 오류를 바로잡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찰전사에서 개성철도경찰대의 개성역 전투에 대한 전훈 및 역사적 의의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는 점은 경찰조직에서 특수경찰로 구분되는 철도경찰대라는 명칭으로 인한 심리적 경계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하지만 전사자들을 포함하여, 당시 철도경찰대의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전보 및 전입과 전출이 빈번하여, 일반경찰과의 구분이 모호했다. 따라서 경찰전사에서 이들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이 연구를 통해 마련된 토대로 기록의 재고와 함께 재조명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로 확인된 개성역 전투의 전사자 명단 중 전사자 명부에 누락된 대원 3명에 대한 명단등재 및 유가족을 찾지 못한 전사자들에 대한 관심과 노력 또한 촉구하고자 한다.

[원고투고일: 2016.10.7, 심사수정일: 2016.11.20, 게재확정일: 2016.11.21.]

주제어 : 국립경찰 개성철도경찰대, 개성역 전투, 북한군 제6보병사단, 북한군의 경의선 철도편승설, 전사자 명단

<ABSTRACT>

The Study on the combat of Kae-song Rail Station by Kae-song Railroad Police Unit during the Korean War

Byun, Hye-Seok

The combat of Kaesong Station by Kaesong Railroad Police Unit was the first combat conducted by national police in order to defend Kaesong Station of Gyeongui Line to the point of death and it was also the last combat before Kaesong was taken by North Korean army, while the 12th Regiment of the Korean armed force was dispersed and evacuated from the area because of the surprise attack at the dawn of June 25, 1950. Kaesong Railroad Police Unit of national police was one of 13 local railroad police units which were subordinate organizations of the railroad police's main force which directly belonged to the Public Order Bureau in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at the time of the Korean War and it was the special police organization in charge of the security mission of the railroad station and its facilities of the Kaesong district in the Northwestern part of the 38th parallel. It was the first railroad police organization made by the military governor, Lieutenant general John R. Hodge on Jan 25, 1946 during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period in Korea on the purpose of protecting and maintaining railway security and its facilities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It had managed as an independent government office like a local National Police Agency for 7 years until October 15, 1953 when it was disbanded.

Kaesong Railroad Police Unit was an irregular forces and special police organization, but the fifty policemen collected by emergency call in order to defend Kaesong Station fought with poor weapons such as carbine rifles and 99-type rifles against the 15th regiment of the 6th infantry

division of North Korea's regular army which had powerful weapons such as T-34 tanks. They were ready to die and fought desperately according to the plan of their commander without being dispersed and evacuated.

The policemen of the Railroad Police Unit were isolated in air-raid shelter, but they came out of the air-raid shelter in order to defend the civilians of Kaesong and carried out attack toward the North Korean army to the last minute. Although they failed to secure the Kaesong Station which they had planned to defend to the death, the result of their delaying and defensive action over one hour contributed to the assembling Korean troops at the defense line of Im-jin River for the defense of the capital city of Seoul. It is natural and right thing that their spirit of sacrifice, the will power for defending nation, and the honor of national police be well appreciated.

However, we cannot find any empirical studies on the combat of Kaesong Station fought by Kaesong Railroad Police Unit now, although it has passed almost 60 years since the combat occurred. And especially the names of the policemen except the commander inspector Gam, Bong-ryong who were killed at the combat haven't been discovered. Besides, the fact that on the day of the outbreak of war the North Korean army which attacked the Kaesong Station got inside Songrak mountain of Kaesong and invaded Kaesong city is well recorded in the police combat manual called as 『Teuksujeonryeosaryeojip』(特殊戰例事例輯) written in 1951. Although the fact that the North Korean army didn't invade the Kaesong Station with riding trains is clearly confirmed through 『Hangukgyotongdongrangi』(韓國交通動亂記)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Transportation in 1953, the unverified fact about the details of the fall of Kaesong city is being quoted, so the courage and sacrifice of the Kaesong Railroad Police Unit is being discolored.

This study cross-validated the documents and testimonies related with the combat of Kaesong Station and it also cleared up the fact that 'the opinion of the North Korean army's take riding of Gyeong-ui Line' was misinformed due to utilizing conflicting testimonies. Thus, it shedded new

light on the recovery of Kaesong Railroad Police Unit's honor and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combat of Kaeseong Station. It confirmed that the elapsed time of the combat in 『Teuksujeonryeosary eoip』 which had recorded the combat of Kaesong Station for the first time was recorded by using summer time which was implemented in Korea at that time. So, it reconfirmed the time of attack by the North Korean army and the time of fall of Kaesong city. Besides, it discovered not only the list of the police men but also the list of those killed in combat. It was after 66 years that the list of 45 men killed was discovered.

Key words : Key words: Kae song Railroad Police Unit of national police, the combat of Kae song Station, The 6th infantry division of North Korean army, the opinion of the North Korean army's take riding of Gyeong ui Line, the list of those killed in combat.

